

제8편 口碑傳承

제 1 장 口碑傳承

本島(부속 섬들을 제외한 제주본토, 이하 같음)에 부속되어 있는 유인도들은 추자도를 제외하면 주민의 생활풍습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생업에서부터 습속들이 그렇다. 소섬(연평으로 하지 않은 것은 속칭을 살리려는 의도임)인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다. 本島民의 이주로 주거생활이 형성된 만큼 문화공동체로서 동질성 그대로이다.

그러나 실제 현지탐사를 통해 채록된 전설·민요·속담·금기담류인 속신담 등의 구비전승물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本島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전설인 경우 이미 수집되어 문헌에 수록된 것 이외에 2편을 더 채록할 수 있었고, 민요인 경우는 일제치하의 저항의식이 담긴 ‘해녀가’로 통하는 <잠수연민가>가 애창되었는가 하면 요즘에 불려지는 잠수노래 중에는 그 노랫말이 시대상황이나 향토여건에 결부시킨 시의성(時宜性)이 돋보인다. 속담과 속신담 또한 本島에서 채록할 수 없었던 이채로운 것이 드러남으로써 소섬의 풍토성과 주민생태를 엿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이들 구비전승물들이 어떤 형태로 전수되고 있는지 설화인 전설·민요·속담·속신담 등으로 구분하여 그 실상을 살펴보겠다. 여기서 덧붙여 둘 것은 채록된 자료의 처리문제인데, 일단 채록된 자료는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 통용여부를 따지지 않고 현지주민에 의해 구연되는 것이면 그 대로 수록했다. 다만 그 중에서도 本島의 것에 비해 이채롭게 생각되는 것만은

해당 분야별로 간추려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설명을 곁들였다.

제 1 절 傳 說

여기 제시하는 3편의 이야기를 놓고 설화라고 할 것인가, 전설이라고 할 것인가, 민담이라고 할 것인가 한참 망설였다. 전설과 민담을 포괄할 수 있는 설화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 내용구조를 보면 너무나 사실성이 강할 뿐더러 화소(話素)마저 실제 있었던 인물과 장소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설이 갖는 이론적 배경에 부합된다. 그래서 전설로 정했다.

지금까지 채록돼 문헌에 수록된 것을 살펴보면, 「제주도 전설지」(제주도청, 1985)에 <득성이코지> 1편, 「연평향토지」(연평초등학교, 1987)에 <섬을 개척한 金進士>* · <釜山 兪事>* · <점복할망>* · <上中目洞宋중이>* · <孫氏 이야기>* 등 5편, 「국문학보」(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3)에 23편이다. 이들 23편은 ‘인물에 관한 전설’ · ‘지형 · 지명에 관한 전설’ · ‘부락에 관한 전설’ · ‘음료수에 관한 이야기’ 등 4개의 부분으로 구분돼 있다.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인물에 관한 전설’로는 <섬을 개척한 김진사>* · <부산 첨사>* · <점복할망>* · <주홍동의 송중이>* · <손씨 이야기>* 등 5편, ‘부락에 관한 전설’로는 <우목동> · <진사터> · <영일동(후해동)> · <고수동> · <전흘동> · <주홍동> · <천진동> 등 7편, ‘지형 · 지명에 관한 전설’로는 <의무덤> · <답당고슬> · <말톡막은 여> · <비양도> · <보섭봉오리> · <망동산과 포제동산> · <고양이 동산> · <돈지당> 등 9편, ‘음료수에 관한 이야기’로는 <진사통> · <양병방통> · <갈라진 문서방통> 등 3편이다.

앞에 열거한 것들 중 *표의 중복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기록화된 것은 모두 24편이니 양적으로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기존의 자료를 한 곳에 집적해 놓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 24편을 전부 수록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면 관계로 그 소재(所載)의 서지사항만 기재하고 아직껏 기록화되지 않은 것 2편과 이미 기록화되었으나 그 내용의 일부가 달리 나타나는 <무곡상 손영감> 1편을 덧붙여 3편으로 한정시켰다.

굳이 이미 기록화돼 있는 1편을 수록하는 이유는 이야기의 주인공 ‘손씨(영감)’가 출행한 육지부의 선착지(船着地)가 ‘인천’이 아닌 ‘강진’으로 되어 있고, 죽은 여인(처녀)의 시체가 선체에 붙어 하우목동 포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양상이 전수자인 화자(話者)의 언술력(言述力)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설화의 변화 가능성을 감지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들 3편의 전설인 <무곡상(貿穀商) 손영감> · <인골분(人骨粉) 이야기> · <조돌패기>를 표준어로 옮겨 수록하지 않고 채록 당시의 화자의 말투를 그대로 살려 기재한다.

○ <무곡상(貿穀商) 손영감> (제보자 : 신인홍 · 남 · 72)

하우목동 손씨 가문에 어느 영감님이 전라도 강진에 식량을 사례갔덴 합니다. 어느 부잣집에 간 식량을 풀아도렌 허난 식량은 풀아줄 수가 있노라. 그 대신 청을 들어 쥐사 하겠다고 하니, 그 청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집안에 풀년이 씨집도 안 갔는디 애기를 배연 우세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 처녀까지 제주로 실령 가민 풀아주켄 하였던답니다.

기민 경 홀 결로 허난 그 부잣집이서 식량도 혼 배 실려주고, 어느제 떠날 것이냐고 물으난 일기도 바사 하니까, 혼 사을은 셔 바사 안다고 하니, 경 홀 결로 하고, 그 곳에 싣단 떠나는 날은 처녀랑 물건덜을 실령 와사홀 판이라.

송영감이 곰곰 생각하니 그 처녀를 드령 가켄 약조는 하였지만서도 이만저만 곤란한 일이 아니니 드령가선 안 되겠다고 벋음 먹언 어떤 수단을 부려도 육지에 떼여 놔 툇 오기로 결심하고, 뱃사름을 보고 저 처녀가 배에 올를 때랑 발판을 들러불렌 하였답니다. 그런 중도 몰르고 그 처녀 발판을 뽕안 타는디 뱃사름은 시킨 대로 발판을 우쑥 들러부난 그만 바당에 털어진 죽어버린 거우다.

경 하여 두고 그냥 배를 몰안 우도 하우목동 포구에 딱 배를 데연 보난 어찌된 영문인지 그 바당에 털어진 죽은 처녀의 시체가 배 뒤에 바짝 달라 붙언 켜덴 합니다. 그걸 본 손영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걸 알고 그 시체를 거두언 잘 안장 시켰는디 그 후 시간이 흐르단 보난 주손들이 잘 위하지 안하였는지 집안이 망하였젠 합니다.

○ <인골분(人骨粉) 이야기> (제보자 : 오영돈·남·65)

비양동에 살던 공달천이란 분이 있었는데 정쟁이에 종기가 나서 고치지 못하던 고생을 허는데, 말을 들은 죽은 사름 뺨따귀를 술안 그 분 7루를 불르민 종덴 허난 그땐 일제시대난 바당에서 죽은 시체덜이 올라온덴 말이우다.

기민 그 시체를 술아난 디 강 보민 타당 남은 뺨따귀 부스레기덜이 십주. 그젠 그 뺨따귀 부스레기를 가져당 다시 술아가지고 불이니까 좋아서마썸. 하도 약이 특효허니까 다시 아프민 불일 양으로 그놈이 것을 봉지에 담안 구들 백장 우에 논 궤 우에 놓아뒀는디 마침 그 뒷날은 집에 제서가 이서신디 그만 꿈빕 잇고 궤 우에 논 뺨 7루를 그냥 둔 채 제서를 지내분거라.

그 뒷날은 새벽에 혼 네사썸 되난 초신을 군화 신듯 질끈 동여매고 다리엔 일본놈덜이 즐겨 치던 각반을 두르고 옷은 보난 군복은 아니주만 그 때 잘 입영 땡기는 초림으로 섬머리 펜으로 감시난, 마침 김달옥이란 분이 불락 니갑허젠 새워 잡으레 가는디 마주친 어디 감수광 물어도 대답도 안 허고 그냥 가더라는 거라마썸.

헌디 붉안 보난 사름이 엇어졌젠 허는 게 아니라. 아마 혼 사을 동안은 좇아실 거라. 좇단 보난 성산포로 가는 광대코지에서 투신했던 걸 발견허여십주. 그건 지금도 아명 생각허여도 그 죽은 사름 뺨따귀광 관계가 이신거 아난가 해서 신통헌 일로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주.

○ <조돌패기> (제보자 : 오영돈·남·65)

전라도 지방에서 들어와 사는 성은 조씨고 벨명은 돌패기엔 허는 피쟁이가 이서십주. 무사 돌패기엔 헌 벨명이 붙었는고 허니 썬을 잡는디 돌로 머릴 찍영 죽여 노양 잡넨 허연 조돌패기란 이름이 붙어십주.

그 때문에 1975년까지 허여도 소섬에 사는 사름덜에게 큰 오명을 둘러써우게 된겁주. 인접헌 성산포나 구좌쪽만 가도 조돌패기 닳은 놈이라고 비웃음을 받아 왔는디, 이 돌패기가 썬을 잡으레 땡길 때 꼭 주맹길 두 개를 차십주. 허나는 눈에 잘 보이는 바깥이 차곡, 허나는 못보는 옷 속옴에 차십주.

그전 웨 그런고 허니 옷 속옴에 찬 주맹기는 썬을 잡당 보민 우왕이 들어시민 그걸 주인 몰르게 담양 곱짜젠 헌거고, 바깥디 찬 주맹기는 놈이 보민 아무 것도

안들언 손꼽은 짓 안 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가장된 시늉입주.

그게 그만 잘못 인식되면 소섬 사름덜은 주멍기 둘 창 탕기는 사름으로 알아버린 거라마썸. 이말은 무신 말이고 허니 각씨 둘 허영 시는 사름으로 알아부는 겁주.

이와 관련헌 일화 가운데 이런 경우가 이셨수다. 이 고을 출신 윤봉일이란 분이 경찰에 근무하고 있을 때 하루는 서귀포에 큰 살인수건이 일어난는디 식당에 간 저녁식사 중에, 7찌 근무하는 과장인가 허는 상관이 말허기를 소섬 조돌패기 이번 수건을 어떻 마무리 지우민 될저라. 이말엔 윤씨는 화가 치밀언 그 상관에게 이건 분명 수석이다. 도대체 사름을 어떻게 깔보고 소섬 돌패기라고 허는거냐고 바짝 대드난 상관이 잘못허엿젠 수정허여났젠 헐 정도로 피해가 커썸주.

이젠 이와 7튼 소섬 돌패기엔 허는 말은 엇어졌지만 어느 잘못된 훈 사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릇 전해져서 소섬 주민덜에게 치욕적인 오명을 입힌 수실은 두고두고 불쾌허기 짝이 었으나마, 훈 펜으로는 뒷사름덜에게 요런 고통 속에 살아온 섬마을이 내력을 알게허는디 큰 도움이 되는 교훈으로 생각하고 이십주.

전허는 말에 따르면 그 조돌패기는 지금 영일동광 비양동 수이에서 살단 죽은 난 그 곳에 묻엇젠 험니다.

제2절 民 謠

일반적으로 소섬의 민요들은 토속성이 강한 편인데, 이는 이 곳의 풍토적 여건이 그 만큼 토속적인 특색이 있다는 말이 된다. 사실상 소섬에서 창민요(唱民謠)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소섬이 갖는 토속성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섬 중의 섬으로서 한국본토는 물론이고 본도와외의 교류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설령 본도와 같이 그 생업형태가 반농반어(半農半漁)라고는 하지만, 농업보다는 어로와 잠수업 쪽에 비중을 두었다는 심증을 갖게 된다.

한편 역사적으로 볼 때 관가의 수탈과 이민족의 침탈, 특히 일본제국시대에 잠수들이 당한 착취의 통고는 강렬한 적개심과 저항감을 불러 일으켰다. 1932년 일제식민지 수탈에 의한 해산물 관제조합의 횡포에 항거하여 구좌·성산포의 잠수들과 동참하여 투쟁을 벌인 것은 그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황과 여건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소섬의 민요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民謠의 種類와 性格

소섬에 전수되고 있는 민요를 조사해 본 결과 창민요는 거의 없고 노동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거에는 불려졌더라도 지금은 거의 살아진 형편이다. 그나마 빈약한 대로 드러나고 있는 민요들을 살펴보면,

농업요(農業謠) : 밭 가는 소리 · 밭 불리는 소리 · 타작소리 · 사대소리 · 아외기소리

어업요(漁業謠) : 잠수 노젓는 소리 · 잠수 연민가(해녀가)

임업요(林業謠) : 출비는 소리

잡역요(雜役謠) : 땅 다지는 소리(달구질 소리)

등인데, 그 중에도 지금까지 비교적 온전하게 전래되고 있는 것은 몇 편에 불과하다. 특히 이 지역에는 어잠업(漁潛業)이 아직껏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만큼 잠수 노젓는 소리나 잠수 연민가가 비교적 잘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그 성격면에서도 소섬이 갖는 특성이 눈에 띄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토속적이다. 본도에는 창민요들도 공존하고 있는데 소섬은 그렇지 않다. 이유인 즉 본도는 한국본토에서 유입됐거나 영향을 받아 모작(模作)된 경향이 환경여건상 소섬까지 전파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토속민요 중에서도 특정의 노동요가 발달했다. 특히 어업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어업요라 하더라도 잠수 노래 등 특정의 민요에 집중화 현상이 드러나 있다.

셋째, 본도에 비하여 비교적 진보적 경향이 짙다. 그래서 신창작 민요들이 생성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잠수 연민가’를 들 수 있다.

넷째, 가락은 비교적 단조롭고 사설은 전개적이라기보다 반복적인 성향이 짙다. 그것은 소섬의 민요가 연행적(演行的)인 노동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표현기교 역시 육성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발생법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본도와 마찬가지로 기층민중성이 강하다. 이것은 곧 민요생성이 지역적 공동의 토대를 기초로 하는 민중들이 능동적으로 창작과 향유뿐 아니라 전수에도 참여했다는 뜻이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토속민요는 생동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소섬의 토속민요는 대체로 안정적이다. 이것은 민요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특정의 노동요에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다.

일곱째, 토속민요 속에는 문화적 공감대를 같이 하는 주민들의 특성, 즉 지역적(향토적) 특성이 풍부하게 함축되어 있다. 이것은 토속민요의 지역적 문화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으로 돌보이는 현상이다.

여덟째, 노동요에는 현실개선을 노래한 것이 많다. 이것은 소섬의 주민들이 부당한 삶의 현장에 막연히 순응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이다.

2. 民謠의 實態

일일이 전부 언급할 수 없으므로 소섬의 어업(로)요를 대표할 수 있는 <잠수 노젓는 소리> · <잠수 소리> · <잠수 연민가> 등 3개만 택해서 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잠수 노젓는 소리

어로와 관련하여 가창되는 민요 중에 가장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해녀 ‘잠수 노젓는 소리’이다. 이 민요는 잠수들이 바다로 물질작업을 나갈 때 배를 저어가면서 부른다. 이 때 노를 젓는 일은 잠수들 자신이 하기도 하지만, 남자들이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민요는 잠수인 여인네들이 주로 부르게 되지만 남자인 어부들도 함께 부른다. 어떤 경우에는 남자가 선소리를 하고 여자인 잠수들이 뒷소리를 받거나 모방하는 형태로 가창된다. 특히 소섬은 잠수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주로 여성들에 의해 가창되어 전래되는 실정이다.

잠수들이 바다로 나갈 때 물으로 돌아올 때 노를 젓는 일은 물질과 함께 힘든 노동이다.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배를 타고 나가지만 노를 젓는 일은 혼자서 젓기보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젓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힘이 좋은 사람이 맡는다.

나머지 잠수들은 뱃전에 모여 앉아 장단을 맞추면서 뒷소리를 부른다. 노를 젓는 동작은 매우 규칙적이면서 강약의 대비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바로 이 민요의 박절적(拍節的) 규칙성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다가 작업용 도구로 가지고 가는 태왁과 빗창은 장단을 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본도 잠수들의 억척스러움은 널리 알려진 대로지만, 그 중에도 소섬을 중심으로 한 본도 동부지역의 잠수들은 예부터 더욱 그렇게 인식돼 있다. 잠수작업의 무대도 인근지역에 그치지 않고 육지부로 나가서 오류개월을 머무는 것은 예사이고 일본으로 출행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소섬에서 조사된 잠수 노젓는 소리의 사설내용인데 본도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이여싸나 이여도싸나 (제보자 : 고태연·여·74, 김춘산·여·56)

요넬 젓엉 어덜 가리

진도바당 혼골로 가민

혼착 손에 빗창 쥐곡

혼착 손에 태왁을 쥐엉

혼질 두질 들어간 보난

저섬길이 분명하다

요네착을 젓언 보난

아니 젓엉 어여싸

요물 아래 은광 금은 꼰렸건마는

형세 나뉘 못하더라

요년들아 혼머들만

젓어도라 앞서 가게

우리 배에 서낭님아

앞발로랑 허위치명

여깃들로 득달하게 하여도 줍서

고동생복 한 딜로나 가게나 흡서

우리 어멍 날 날 적어

해천영업 태움서로 날 낫던가
 가시납이 뭉고지에
 손에 팽이 백엿구나
 우리 어멍 날 날 적에
 무신 날에 나앗던고

위 잠수 노젓는 소리의 사설내용은 비교적 고정적이다. 사설이 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이 민요가 소섬의 잠수들 사이에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이 민요의 사설을 그대로 기억하여 전수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가창형식은 복잡한 편이다. 한 사람이 선소리를 하고 여러 사람이 후렴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두 사람이 교대로 선소리를 바꿔부르나 모방창(模倣唱)으로 엮어 나가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그 중간 중간에 ‘이어싸’등의 후렴을 받는 식의 가창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민요는 6마디에서 14마디 정도의 선율이 한 개의 악절을 이루는 구조로 돼 있다. 가창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소리에서 나타나는 악절의 마디 수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두 마디를 짝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길이를 한 개의 악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처음에 시작한 가락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 즉 민요의 첫 2마디 또는 4마디는 높은 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율은 낮은 형태의 가락이 일정하게 반복된다. 이 반복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악절의 길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 선율선(旋律線)을 살펴 보면, 감정기원적인 하행곡선을 이룬다. 악절의 후반부는 사실상 같은 가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낮은 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 높은 소리로 강력하게 가창하다가 후반부로 가서는 차분하게 낮은 음을 연주하면서 다소 여유를 가진 다음 다시 처음의 높은 소리로 돌아가고 있다. 노동의 성격이 강력한 신체적 동작을 수반하기 때문에 감정적 여흥의 폭도 크고 음역(音域)도 넓다.

2) 잠수 소리(제보자 : 고태연 · 여 · 74)

이 ‘잠수소리’는 물질작업을 나갈 때 여럿이서 무리를 지어 횡대로 열을 짓고 헤엄쳐 가면서 불려진다. 앞의 ‘잠수 노젓는 소리’에 비해 다른 점은 노랫말인 사설내용이다. 잠수 노젓는 소리에서처럼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정적 사설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 이것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조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요물질 ㅎ영 요돈 벌영 어느 형제간 대학이나 시킬건가”만 보더라도 8·15 광복 이후의 자본주의 세태하에서 겪는 교육열과 직결돼 있다.

이여싸 이어 이여싸
 앵들아진 섬에 삼시 굶영
 요물질 ㅎ영 요돈 벌영
 어느 형제간 대학이나 시킬건가
 이어도사나 이어싸
 이여차이 저어라차
 넘어야 가긴 잘 넘어가도
 돌아오긴 만무 ㅎ다
 이여사 이여싸
 저어라 저어라차이

3) 잠수 연민가

이 노래는 소섬을 중심으로 본도 동부지역인 구좌와 성산포 일대에서 가창되고 있는 특이한 성격의 노래이다. 그 명칭도 편이상 붙인 것인데 일부에서는 ‘해녀가’로 통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잠수 연민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녀가’라고 했을 때 본도 전반에 걸쳐 분포돼 있는 ‘잠수 소리(해녀 노래)’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 노래의 형성배경은 잠수들에 대한 일제의 수탈이 심했던 억압과 착취에 항거한 저항사건과 연계돼 있다. 전하는 말로는 구좌나 성산포에서 만들어졌다고도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소섬에서 체계화의 산실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가락을 놓고 볼 때 과연 그것이 본도풍(本島風)의 노래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일본의 노래인 소위 ‘미야꼬부시(陰音階)’라고 하는 음계에 의한 일본조의

가락을 차용하여 부르고 있다. 일제에 대한 항거의 노래가 그 적대국의 가락이라는 점은 납득이 어렵다. 아마도 그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일본조의 가락들이 어쩔 수 없이 유행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일본식 교육을 받은 식자층이 음악적인 가락에 대한 인식과 작용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점을 고려하면 그 속에 담긴 정신은 높이 사지만 일본조의 가락을 그대로 차용한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엄밀히 말하면 이 노래는 본도의 민요라고 하기 어려운 만큼 소섬의 민요라고 하기도 어렵다. 민요를 규정하는 것이 음악이고 보면 외국인 일본의 가락을 본도에서 도용했다고 해서 노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도의 민요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잠수들의 비참한 삶과 투혼이 반영돼 있어서 주목을 끈다. 노랫말의 작사는 제보자인 신인홍 옹에 의하면 이 지역 출신 강관순이란 분이 1932년 잠수항거사건 당시 투옥되었을 때 만들어졌고, 출옥한 후에 잠수들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 사설내용은 다음과 같이 4절로 짜여져 있다.

<제 1 절> (제보자 : 신인홍 · 남 · 72)

우리는 제주도의 가이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제 2 절>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하루 종일 애썼으나 번 것은 기가 막혀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도 못자네.

<제 3 절>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 가족 생명선을 등에다 지고

바다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제 4 절>

배운 것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저놈들은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가네.
가이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같은 노래이면서도 제보자에 따라 노랫말이 부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데, 고성화가 제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절>

우리는 제주도에 가이없이 해녀들
가난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 위에 시달리는 몸

<제 2 절>

어린 아이 젖먹이며 저녁밥 짓네
하루 종일 해 봤자 버은 것은 기막히고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 못이루네.

<제 3 절>

이른 봄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별코
온 가족 생명선을 등에다 업고
파도 치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가네.

<제 4 절>

배운 것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마다
왜놈들은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 가네.

불쌍한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제 3 절 俗 談

삶의 생태와 습속을 다양하게 엿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속담이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한두 마디의 간결한 말로 구술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경험을 통해 체득된 지혜와 교훈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 곳 소섬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속담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독자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향토적 특색을 가진 것이 그 민족 고유의 것일 수 있고 나가서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처럼 소섬에서 채록된 속담들 중에는 본도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4편만 제시해 보겠다.

① 웨 곱세기 뒤편 큰 궤기 딱른다.

(외 돌고래 뒤편은 큰 고기 따른다.)

② 상군은 속옷 벗영 죽곡, 톨파런 비단 속옷 입영 죽나.

(상군은 속옷 벗어서 죽고, 톨파리는 비단 속옷 입어서 죽는다.)

③ 영동할망 청치메 입영 오민 날 좋곡, 우장 썩 오민 날 우치곡, 물치게 입영 오민 춤곡, 몹쌀민 브름 분다.

(영동할머니 청치마 입어서 오면 날씨 좋고, 우비 썩어서 오면 비 내리고, 누비옷 입어서 오면 춥고, 몹쌀면 바람 분다.)

④ 염송애기 물똥 싸는 거 본 사름 엇(웃)나.

(염소 물똥 싸는 것 본 사람 없다.)

위 ①의 속담은 이곳 소섬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 ‘큰 고기’는 상어를 말한다. 이 말은 결국 돌고래가 여러 마리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곳에는 상어들이 접근하지 않으나, 한 마리만 따로 떨어져서 다닐 때는 거의 상어를 불러들이는 위험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 마리만 떠도는 돌고래 근처에서 잠수들이 작업을 하다가는 화를 입게 되므로 몹시 경계한다. 이와 관련해서 ‘웨 곱세기 뛰는 딴 가지 말라. (외 돌고래 뛰는 때는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곳

잠수들에게는 상식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고래인 곰세기는 소섬의 주민들에게 기상관계를 예상케 하는데 ‘곰세기 가깝게 오면 날’우친다. (돌고래 가깝게 오면 비 온다.)’가 그것이다. 사시사철 해양생활에 종사해 온 어부나 잠수들은 인근 바다생물에 대한 생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관찰해 온 데서 얻어진 결과이다.

또한 신기한 것은 잠수들이 해엄쳐 가다가 보면 곰세기 때들과 맞절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잠수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를 내어 ‘배 알로!’하면 마치 그 소리를 알아들은 듯이 잠수들의 배 밑으로 살짝 미끄러지면서 비껴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곳 소섬 주변에 나타나는 돌고래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낯설어 정원시 되는 동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의 속담은 잠수가 최고경지에 이르는 잠수술을 터득하여 상군으로 활동해 보았자 반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오죽 했으면 죽을 때 속옷 하나 제대로 못 입었을까. 참담했던 잠수의 수익성을 되새겨 보게 한다. 그러면 물질하는 기술이 없는 하군인 잠수의 애송이 ‘툼파리’는 비단 속옷을 입을 정도로 잘 살았다는 말인가. 그것은 역설일 뿐, 아무리 한평생을 잠수업에 전념해도 퍼지지 못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강조이다.

잠수업이 늘속이 없음은 이곳 소섬만의 것은 아니다. 본도에도 ‘질삼밭 늪은인 죽언 보난 미녕소중이가 아홉이곡, 줍수 늪은인 죽언 보난 일곱애비아덜이 들르는 도곰수견이 하나이다. (질삼밭 늪은이는 죽어서 보니 무명고쟁이가 아홉이고, 잠수 늪은이는 죽어서 보니 일곱 父子가 드는 도곰수견[물에 들 때 입는 음부를 가리는 잠수복]이 하나이다.’를 비롯해서 마라도에서 채록된 ‘줍순 죽어도 걸름도 안 된다. (잠수는 죽어도 거름도 안 된다.)’는 그 대표적인 속담이다. 아무튼 옛날의 잠수업은 지금처럼 권익이 보장되는 것과는 달리 천대 속에 근근히 연명의 수단으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③의 속담은 속신(俗信)과 연관된 것인데, 음력 2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15일 동안은 ‘영등할망’이 들어와서 묵는 기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각종 급기사항이 있는가 하면 일기변화에 대한 ‘영등할망’의 차림새와 기질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여겼다. 차림새와 관련해서 날씨가 맑게 개인 날이 계속되면 청색

치마를 곱게 입고 왔기 때문으로 알았고, 날씨가 흐려 빗날이 많으면 우장을 하고 온 것으로 알았다. 또 날씨가 추우면 누비옷을 껴입고 왔다고 했고 바람이 부는 날이 많으면 성깔이 사나운 '영등할망'의 조화로 알기 일쑤였다. 시대가 변하고 보니 토속적인 신앙관과 연계된 속신담(俗信談)의 하나로 전락되어버렸지만, 아직도 노년층에서는 심심치 않게 떠올려지고 있다.



영등굿 하는 장면

지금도 음력 2월 15일은 '영등굿'하는 날로 돼 있다. 이날은 영등할망이 최종적으로 거쳐서 나가는 곳으로 되고 있는데, '섬머리'쪽 '둥어귀'에서 '영등굿'이 행해진다. 이때는 배에 미역·천초 등 해초류를 싣고 바다로 나가서 띄워 보낸 뒤 그 배가 귀항해야 어로 작업을 나가는 배들이 출항케 된다.

④의 속담은 과거 소섬의 가축 목양장(牧養場)으로 활용되었던 흔적을 드러내고 있다. 본도가 고려와 조선시대 목축의 최적지로 활용되었을 때 우마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보니 양과 염소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는데 이원진의 『탐라지』에 보면, 사라봉 남쪽에 양잔(羊棧)이 있어 털을 뽑아 진상해서 말안장에 쓴다고 했

고, 고유(羔圍)는 소섬과 비양도에 있다고 기록돼 있다. 기록대로라고 한다면 그리 흔치 않은 염소의 사육지가 이곳 소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도 속담의 소재로 등장하는 가축들 중에 소·말·돼지·닭·개 등의 동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많고 속담도 다양하게 전해진다.

그러나 유독 염소를 소재로 한 것은 ‘일하당 죽은 황밭갈채나, 놀당 죽은 염송애기나. (일하다가 죽은 황소나, 놀다 죽은 염소나.)’가 고작이다. 다른 가축처럼 본도 전역에 걸쳐 많이 사육되었더라면 이들을 화소(話素)로 한 속담이 한두 편만 채록될 정도로 빈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곳 소섬은 한때 염소의 사육장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④와 같은 속담이 형성된 것으로 안다. 특히 염소는 위장이 든든해서 설사를 앓은 것으로 믿고 있다. 실제 설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설사하는 염소를 누가 보았겠느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곧이 들겠느냐고 하는 확고히 다져진 신념을 드러낼 때면 이 속담이 유효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에 열거한 것은 이곳 소섬에서 채록된 것이므로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제보자 : 공덕량·남·72, 김윤일·남·80, 김준택·남·58, 신인홍·남·72, 우봉호·남·73)

- 갈치가 갈칠 잡아 먹나.
(갈치가 갈치를 잡아먹는다.)
- 나드는 개가 꿩 물어 온다.
(나들이 하는 개가 꿩을 물어 온다.)
- 나 돌이 고와사 사월 골른다.
(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른다.)
- 놀이 커도 주쟁이(주지)가 으뜸이다.
(노적이 커도 주지가 으뜸이다.)
- 돌레떡 안팎 었나.
(돌레떡 안팎 없다.)
- 도둑 텐 벗어도 주녀 텐 못 벗나.
(도둑 티는 벗어도 자녀 티는 못 벗는다.)

- 두루 죽은 영장 혼 불른다.
(덜 죽은 영장 혼 부른다.)
- 들르는 돌이 셔사 낫이 복나.
(드는 돌이 있어야 낫이 붉는다.)
- 먹을 거 었은 제서에 절한다.
(먹을 것 없는 제서에 절한다)
- 매여든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승본다.
(매어달린 돼지가 그슬린 돼지 흥본다.)
- 송어 튀민 복쟁이도 튀난 배 갈라정 죽나.
(송어 튀면 복어도 튀다가 배 찢겨 죽는다.)
- 안 먹켄 춤 바꾼 우물 삼 년도 안 되영 다시 먹나.
(안 먹겠다고 춤 났은 우물 삼 년도 안 되서 다시 먹는다.)
- 업은 애기 일뻬 훗나.
(업은 애기 이래 찾는다.)
- 으스룩한 디 꿩독새기 난다.
(어수룩한 데 꿩알 넣는다.)
- 조근 궤기 가시 췌다.
(작은 고기 가시 세다.)
- 주끄는 갠 줄곡, 먹는 갠 솔친다.
(짓는 개는 마르고, 먹는 개는 살찐다.)
- 코 붙은 아이 거 덜레먹기.
(코 묻은 아이 것 덜어먹기.)

제4절 俗 信 談

속신담이라고 함은 금기담(禁忌談)·길흉담(吉凶談)·예조담(豫兆談)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설정한 용어이다. 이들 속신담 가운데는 속담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것도 상당수 있지만, 실제로는 속담과 별개의 것으로 분류된다. 이유

인 즉 속담에 비해 공감대 형성면에서 통속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때 비과학적이고 낙후된 미신이 낳은 우폐성의 소치로 알고 무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운신의 방식과 형상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비과학의 과학성(비합리의 합리성)을 인식하고 과거를 재조명하는 언어유산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선인들의 독특한 인습과 관행(慣行)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는 말이다.

앞의 속담에서도 그랬지만, 이곳 소섬의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것들 가운데 돋보이는 것을 골라 살핀 다음 나머지는 금기담·길흉담·예조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① 애기 낳 후탈하는 사람은 뜯 사람 애기 난 더 안 간다.

(애기 낳고서 후탈하는 사람은 뜯 사람 애기 난 데 안 간다.)

② 반함 때 써난 사발광 소까락은 삼년상 지날 때까지 쓴다.

(飯舍 때 썼던 사발과 숟가락은 삼년상 지날 때까지 쓴다.)

③ 물 아래서 거북과 눈 마주침 7마니 시민 스망 일곡, 피행 도라나불민 소망 엇(웃)나.

(물 아래서 거북과 눈 마주쳐서 가만히 있으면 재수 좋고, 피해서 도망쳐버리면 재수 없다.)

④ 쉼나 행상 시꾸민 큰 켜기 나쁘다.

(소나 행상 꿈꾸면 큰 고기 낚는다.)

위 ①은 산속(産俗)을 드러낸 금기담이다. 지금도 이따금 눈에 띄지만 집안에 어린애가 태어나면 금줄인 새끼를 일부러 왼쪽으로 돌려 꼬아서 마당어귀에 가로 매어 놓는다. 아무나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알림이다. 빠르면 7일 보통은 15일에서 21일 동안 걷지 않고 그대로 매어 두는 것이 통례이다. 그 금줄이 절려져 있는 한은 가족 이외의 사람이 출입이 통제된다. 더구나 초상집에 드나들었을 경우는 한 집안 가족도 산모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삼간다. 이와 같은 금기사항을 외면했다가는 삼승할머니의 노여움을 사서 유아나 산모에게 해가 미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산후 몸조리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끼가 있는 여인네가 방문하면 그 사람을 닮아 후탈이 생긴다고 믿고 잘 지켰다고 한다.

②는 상례에서 나온 속신어이다. 사람이 죽어서 입관하기 전에 염습과정이 치러진다. 그때 수의를 입히고 마포로 시신을 싸서 12마디로 묶게 되고 시신의 입 안에는 그릇에 넣어 물에 불린 쌀 21방울을 7방울씩 3번에 나눠 떠 넣는데, 그 쌀을 물리는 것을 반함(飯舍)이라 한다.

본도에 전해지고 있는 재래식 상례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반함을 떠 넣는 것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버드나무가지로 만든 유도(柳刀)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곳 소섬에서는 직접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그 때 사용했던 그릇과 숟가락을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이채롭다. 지금은 장례 후 백일 탈상도 있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소상과 대상까지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의례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삭망제(朔望祭)를 지냈고 혼백을 모신 상에는 매일 아침·낮·저녁으로 세 끼의 식사를 올리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

③은 잠수들이 바다 밑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겪는 길흉담이다. 예나 지금이나 거북은 용궁의 사자로 알고 상서로운 동물로 대하기 일쑤이다. 지금도 이곳 소섬에서는 바다 속에 자맥질해서 보면 거북이가 물 밑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순간 거북의 눈과 한참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재수가 좋을려면 용케도 도망치지 않고 서로 시선을 맞대고 쳐다보는 눈맞춤의 순간이 이어진다. 그런 날은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 채취량이 이외로 많아 수익을 올리는 행운이 따른다.

반대로 잠수가 앞에 당도하면 쳐다보기는커녕 머리를 돌려 도망쳐버릴 때는 재수가 없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잠수출신인 강순옥(71세)과 강경숙(63세) 여인의 말에 따르면 이따금씩 거북이가 죽어서 해변에 밀려오면 그것을 잘 물어주는 뒷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물질의 안녕과 수익을 기원하는 의례적 관행이라는 것이다.

④는 해몽을 통한 어로의 행운을 예견하는 징조담이다. 꿈 속에 나타나는 소가 크면 클수록 대어를 낚을 징후로 여겼고, 사람의 시신이 운구되는 상여를 꿈꾸어

도 어획량이 많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꿈이라도 ‘큰 썬 이경 들어와 베민 큰 꿩
기 나쁘다. (큰 소를 이끌고 들어와 보이면 큰 고기 낚는다.)’고 해서 황소가 등
장하면 더 길몽으로 여기고 있다. 잠수들은 잠수들 대로 ‘썬똥을 주서 베민 거평
뎐다. (소똥을 주어 보이면 큰 전복 뎐다.)’고 해서 좋아 한다.

행상의 문제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도 시신을 담은 관인 경우 문명의 이기인
비행기인데도 그 관을 시르면 재수가 좋다고 해서 기꺼이 운반해 주는 것과는 무
관하지 않은 것 같다. 상점에서도 두건을 썼거나 복치마를 입은 상주가 물건을
사고나면 재수가 좋아 물건이 잘 팔린다고 환영한다.

이렇듯 이곳 소섬은 본도와 맥락을 함께 하는 문화공동체이지만, 파고 들면 고
유의 이채로움이 있다. 아무리 동질성의 문화공동체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다
같을 수만은 없다. 그 지역 나름의 풍토성에 대응하는 주민의 삶의 생태에 따라
구비전승물의 양상도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禁 忌 談〉(제보자 : 강보순·여·77, 강순옥·여·71,
강경숙·여·63, 강철석·남·59,
고복련·여·62)

- 상잔 잔칫집 음식상 안 문 지근다.
(상주는 잔칫집 음식상 안 만진다.)
- 새각씨 들어올 때 씨어멍은 안 내다본다.
(새색시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안 내다본다.)
- 새각씨 들어와 상 받기 전엔 씨어멍 고평에 들어강 안 나온다.
(새색시 들어와서 상 받기 전에는 시어머니 고평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 새스방 새각씨 집에 들어올 때 가시어멍 안 쳐다본다.
(신랑 신부 집에 들어올 때 장모 안 쳐다본다.)
- 소님 들민 상 못 방앙 먹나.
(마마 들면 상 못 차리고 먹는다.)
- 영등돌 넘기 전엔 개궤기 안 먹나.
(영등달 넘기기 전에는 개고기 안 먹는다.)

- 영등할망 들어온 때 요왕에 제 드리지 못한다.
(영등할머니 들어온 때는 용왕에게 제 드리지 못한다.)
- 영등할망 들어온 땐 조왕제 못 지낸다.
(영등할머니 들어온 때는 부엌제 못 드린다.)
- 운구할 때 관으로 문입쟁이 건드리면 봉분 쉼 파분다.
(운구할 때 관으로 문설주 건드리면 무덤 소 파버린다.)
- 잔치 옷 홀어명 안한다.
(잔치 옷 홀어미 안 만든다.)
- 통시 만들 때나 고칠 땐 날 방 한다.
(변소 만들 때나 고칠 때는 날을 봐서 한다.)
- 통싯물건 아무 제나 문지르면 동티난다.
(변소 물건 아무 때나 만지면 동티난다.)
- 해 뜨기 전광 해 진 후에 막깨질 소리 내우면 귀신 들어온다.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에 방망이질 소리 내우면 귀신 들어온다.)

<吉 凶 談> (제보자 : 앞과 같음)

- 고양이 말하민 재수 옷(엣)나.
(고양이 말하면 재수 없다.)
- 낱짐승을 죽여 베민 흥꺽꺽, 살려 베민 길한다.
(낱짐승을 죽여 보이면 흉하고, 살려 보이면 길한다.)
- 댄 문저 땡근 소중이 입엥 물에 들민 머정안다.
(댄 먼저 만든 고쟁이 입어서 물에 들면 재수 좋다.)
- 밧갈쎄 집안에서 죽으면 액운 든다.
(황소 집안에서 죽으면 액운이 든다.)
- 보피창옷에 돈 싸 놔뒀당 노름하러 가민 돈 판다.
(보피창옷<신생아에게 입히는 소매가 긴 옷>에 돈 싸 두었다가 노름하러 가면 돈 판다.)
- 영등뜰 줌수굿할 때 바당궤에 줍썰 뿌리민 메역 풍년 든다.

(영등달 잠수굿할 때 바닷가에 좁쌀 뿌리면 미역 풍년 든다.)

- 요왕할망 말젓꿀애기 만날 때 눈 마주보면 스망인다.

(거북이 만났을 때 눈 마주보면 재수 좋다.)

- 으문 허벅진 사람 만난 건 재수 좋다.

(여문 허벅진 사람 만난 것은 재수 좋다.)

<予(徵)兆 談> (제보자 : 앞과 같음)

- 꿈에 송장이나 피(血)을 보민 좋다.

(꿈에 송장이나 피를 보면 좋다.)

- 노랑쟁이 잘 난민 시절 좋다.

(뚝배기 잘 자라면 시절 좋다.)

- 바닷길 알 흥탱이에 모살 7득으면 풍년 든다.

(바다 밑 움파리에 모래가 가득하면 풍년 든다.)

- 바닷길 알 흥탱이에 모살 파지민 흉년 든다.

(바다 밑 움파리에 모래 패이면 흉년 든다.)

- 설귀떡 시꾸민 점복 잘 떴다.

(설기떡 꿈꾸면 전복 잘 떴다.)

- 소님빙은 강침에 먼저 들민 피해가 크다.

(마마가 강씨 댁에 먼저 들면 피해가 크다.)

- 정월초승에 물꾸러 잡으면 그 해 재수 좋다.

(정월초승에 문어 잡으면 그 해 재수 좋다.)

- 쥐 으물민 보리도 윤나.

(성계 여물면 보리도 여문다.)

- 폐역 불릴 때 곰 피민 시세 좋다.

(미역 말릴 때 곰 피면 시세 좋다.)

제2장 地名由來

제1절 西 光 里

ㄱ 서광리(西光里)

서광리는 우도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석양이면 서쪽으로 지는 해가 곱게 비친다 해서 서녁서(西), 빛광(光) 자를 이용 서광이라 했다.

예전의 우뚝개(牛目洞), 지금 상·하우목동과 우도의 중심지인 중앙동(中央洞)을 합친 곳이다.

ㄴ 우목동(牛目洞)

우목동에는 소와 천초(우뚝가사리)에 관련된 두 가지 유래가 있다.

우뚝개는 우무(天草) + 개(浦)의 합성어라 할 수 있다. 우뚝가사리를 캐는 포구로, 아니면 우뚝가사리가 많이 생산되는 개(浦), 또는 바닷가에 인접한 촌락으로 풀이하는 설이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천초(우뚝가사리) 생산지이다. 우도는 제주도 천초 생산량의 4분의 1을 생산한다. 이와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우뚝개」는 천초 때문에 생겨난 명칭이고, 「牛目」은 옛 문헌들에 우무(天草)를 우모(牛毛)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牛毛가 많이 나는 곳’ 즉 목(目)으로 인식하여 「牛目」이란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소(牛)와 관련된 설도 있다. 우목동은 이 섬에서 선사시대의 주민들이 살았

다고 전해진다. 1844년 김석린(金錫麟) 진사가 입주하기 전 이 섬은 진상용 소(실지로는 말을 사육했다)를 양육하는 곳이었다.

목자(牧子)들은 섬에서도 거주 환경이 제일 좋은 곳을 골라 살았을 것이다. 그 곳이 우목동에 있는 「장통알」이다. 이곳은 움푹하여 거센 북풍에 바람막이가 되었고, 소를 간직하기에도 편리한 지형이다. 이뿐이 아니라 본도와의 거리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소를 실어 나르기에 알맞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도의 목자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다 해서 「牛牧洞」이 「牛目洞」으로 와전된 설이다.

목동들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근래에 장통알 근처에서 공사도중 땅을 파는데 동물뼈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

또 소의 눈과 관계된 유래도 있다.

우도는 전체가 흑회색의 암석과 모래이었는데 하우목동의 해안(지금의 서빈백사)만이 유독 하얀 모래이었다. 이는 성산포나 종달리에서 보아도 하얗게 빛난다. 이 현상을 우도의 지형(소가 누운 형태)과 결부시켜 '우도의 눈(雪)'으로 표현한 것이 소의 눈(目)으로 와전되어 「牛目洞」이라 불리워진 것이라고도 한다.

□ 웃 · 알 웃웃개

「웃」은 위쪽 혹은 오른쪽, 「알」은 아래쪽 또는 왼쪽을 뜻한다.

「웃 웃웃개」는 상우목동, 「알 웃웃개」는 하우목동의 속칭이다.

□ 고벙이 동산

「고벙이」는 「고양이」의 제주어이다. 이 명칭을 직역하면 고양이와 관계있는 조금 높은 곳이다.

상우목동과 전흘동 사이에 있는 둔덕으로 고양이의 복수에 대한 전설이 전해진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이 근처에 고양이가 자주 들락거렸던 「고벙이 굴」도 있었나 한다.

50~60년 전 늙은 노인이 이곳에 살았다. 그는 쥐잡이 용으로 수코양이 한 마리를 키웠다. 그런데 고양이는 쥐를 잡기는커녕 암코양이만 찾아 다녔다. 화가 난 노인은 고양이를 잡아 거세를 해버렸다.

어느날 밤, 잠을 자기 위해 이불 속으로 몸을 넣은 노인은 화들짝 놀라 방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불 속에는 고양이가 파란 눈을 부릅뜬 채 웅크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노인은 ‘쥐를 잡지도 못하는 것이 못된 짓만 골라한다’며 발로 고양이를 힘껏 전어차고 밟았다. 방구석으로 나뒹그러진 고양이는 ‘야옹’하는 울음과 함께 노인에게 달려들어 노인의 고환을 물고 늘어졌다. 노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고양이를 죽였는데도 고양이의 입은 열 수가 없었다. 결국 노인은 고양이와 함께 죽고 말았다.

□ 큰·죽은모살넛기

우도 8경중 일경인 서빈백사(西賓白沙)일대를 말한다. 이 백사장은 두 곳으로 나뉘어졌는데 넓은 사장은 「큰모살넛기」, 좁은 곳은 「죽은모살넛기」이다. 「모살」은 모래의 제주어이다.

□ 왕모살넛기

「왕」은 크다는 말을 뜻한다. 서빈백사의 모래는 모래라기보다는 작은 자갈(돌멩이)이라 할 수 있다. 큰 모래가 많은 곳을 뜻한다. 지금의 서빈백사 전체가 「왕모살넛기」이다.

□ 포제(酬祭) 동산

현재 충혼묘지 부근이다. 우도 사람들은 매년 정월초(正月初) 정해일(丁亥日)을 택하여 집단적으로 제(祭)를 올려 천신(天神)과 지신(地神)께 순풍(順風), 순우(順雨), 풍작과 가축의 번식, 주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이곳 사람들은 평탄한 어로생활을 기원했다 한다. 이를 포제(酬祭) 또는 마을제라 했다. 제를 올리던 곳을 「포제동산」이라 한다.

1870년경 이곳에 누군가에 의해 무덤이 생겼다. 사람들은 회의를 갖고 중지를 모아 묘를 이장하였지만 이 곳은 부정한 곳이라 하여 각 동별로 갈려 나가서 제를 지니게 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포제는 폐지되고 말았다.

최근 조상의 뿌리 찾기 운동에 힘입어 정월 정해일에 포제가 재개되었는데 우도면에서는 천진리와 조일리, 두 곳에서 행해진다.

□ 좌 윤 이 통

「임좌윤」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뾰다 해서 「좌윤이통」이다. 2048번지에 있는 물통 이름이다.

□ 선 서 방 통

현(玄)씨 성을 가진 사람이 파서 사용했던 물통이다. 현씨가 선씨로 변음되어 지금은 선서방통이다. 2136·1번지 삼거리에 있다.

□ 고 동 여

「고동」은 소라(螺)의 방언이다. 그 여(嶼)에서 소라가 많이 잡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고동여 불턱

고동여(嶼)」 앞에 있는 「불턱」이다. 해녀들이 언 몸을 녹히기 위해 불을 지피는 곳을 말한다.

□ 뚝 산 지 미

이곳은 수심이 깊기로 유명하다. 어느 날 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자맥질을 하다가 물위로 올라오면서 대변을 보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 잔 잔 훈 여

「잔잔하다」는 「자다잘다」의 제주어이다. 조그마한 암초들이 줄줄이 줄지어 있는 현상을 연상하면 되겠다.

□ 개 낭 동 산

서광리 하우목동 2300번지 일대에는 「개낭(누리장 나무)」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개낭이 많은 곳으로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개낭동산」이다. 6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 동산에는 아름답리 바위덩어리가 많이 있었다. 새마을 사업이 실시되면서 지붕 개량사업이 시행되자 집을타리 공사도 병행되었다. 이 곳의 왕석들은 울타리의 좋은 재료였다. 사람 손에 의해 왕석이 쪼개지고, 쪼개진 돌은 가옥을 개축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된지 2~3년, 이 동산의 돌을 이용

해 개축한 집 사람들에게 「동티(건드려서 안 될 땅을 파거나 돌을 채취 또는 치우거나 거목을 베었을 때, 이것들을 관장하는 신에 의해 입게 되는 재앙)」가 나서 간장염에 걸리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가족들은 무당을 빌어 굿을 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 결과는 「개낭동산」의 돌에 손을 댄 탓이라 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동네사람들은 나머지 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간장염도, 이름 모를 병도 68년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 한다.

□ 논 것 디

몇년전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큰물통, 작은물통, 「물그랑(연자매), 놀이터가 있어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였다. 예전에 노파가 손자와 같이 살고 있었다. 손자는 일은 하지 않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모이면 같이 놀기를 좋아했다. 이를 안 노파는 아이들이 모이면 “노는 것들은 다가”라며 아이들을 쫓곤 했다. 말을 잘못 알아들은 아이들은 그 노파만 나타나면 “논것디 할망 왓저”하며 도망을 쳤다 한다. 그래서 이후 이 지명은 ‘논것디’로 되었다는 설이 있다. 다른 일설은 놀이터가 제주어로 「노는디」이므로 이의 변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매립되어 화단이 조성되었다. 하우목동 2219-1번지 앞 일대이다.

□ 동 골 목

하우목동 2239에서부터 2240번지 일대이다. 동쪽을 향해 길게 뻗은 골목인 데서 유래되었다.

□ 답당ㄱ슬(답다니)

하우목동에 방사탑이 있었던 곳에서 성산포 쪽을 보면 시원스럽게 트여 있다. 지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 상으로는 이곳이 허(虛)해서 많은 재앙이 닥쳤다 한다. 특히 종달리(終達里) 지미봉 앞에 도깨비불이 나타나 춤을 추나 「드렁코지」로 우도에 넘어와 「생이동산(상여동산)」으로 이동해 집근처에 떨어져 천화(天火)가 발생했다.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 「탑」을 「ㄱ슬(가을) 늪(노적거리)」 같이 쌓았다. 이 탑은 여느 탑과 같이 수·암탑이었다. 하우목동은 동쪽과 남쪽은 「앞동산」, 「선서방동산」, 「개낭동산」이 있어서 각종 액(厄)을 막아주었

지만 서쪽과 북쪽은 허했다. 그래서 두 개의 탑을 쌓았다. 지금은 허물어져 지명만이 남아 있다.

□ 구린질 목

제주어에서 「구린」은 「속이 비다」이다. 「질」은 「길」. 속이 빈 곳으로 가는 길목을 얘기한다. 하우목동 2399-3번지 일대이다. 지금은 매립되었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웅덩이가 있었다.

□ 특생이 코지(岬)

상우목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이곳은 두 가지 설이 있다. 우도에 경작 허가가 있기전 「특성」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았다는 설과 구좌읍 종달리에 거주했던 김씨의 종 이름을 딴 것이라는 설이다.

100여년 전 종달리에 인물이 호걸이고 풍채가 좋았을 뿐 아니라 특히 목소리가 크고, 쟁쟁하기로 유명한 김씨가 살았다. 그는 어느날 우도에 볼 일이 있어 건너 왔는데 풍량이 거세어 돌아가지 못했다. 할 수 없이 하룻밤을 우도에 묵었는데 이튿날은 날씨가 청명하였다. 김씨는 안종달(지미봉 뒤편) 만동산에 밭이 있었는데 종놈이 밭을 가는가 보려고 이곳에 서서 밭이 있는 곳을 보았다. 웬걸, 종놈은 쟁기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김씨는 “야 ~ 특생이 놈아! 일어나 밭 갈아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종달리와 우도 사이는 3킬로미터이다.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알아듣고 종놈이 벌떡 일어나 밭을 갈았다 한다. 그 후부터 김씨가 「특생이」를 불러 깨운 코지(岬)라 하여 「특생이 코지」라 했다 한다.

□ 개 창

하우목동 포구의 입구이다. ‘개’는 포구(浦口)를 말한다. 창(窓)은 문(門)이다. 즉 포구의 입구란 뜻이다.

□ 오 따 니 여

「웃」은 「가마우지」의 제주어이다. 「가마우지」가 많이 몰려 들어 앉은 「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예전에 「옥단」이란 여자가 「물질」을 하다 지쳐서 앉아 쉬었다는 데에 유래되어 「옥단이여」가 변음되어 「오파니여」가 되었다고도 한다.

□ 임충이 강알

‘임충’이는 사람 이름이고 ‘강알’은 사람의 두 다리 사이 ‘살’의 제주어이다. 옛날 「김임충」이란 사람이 「전홀동」에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살았다.

그는 어느 날 성산포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친구를 만나 술을 한 잔 한 탓에 늦어 배를 띄웠다. 하늬바람이 세차게 불었기 때문에 전홀동 포구에 배를 댈 수 없음을 안 그는 「우뭇개」를 이용하려고 했다. 밤이 되어 우도에 왔는데 「우뭇개」로 알고 배를 접안시켰으나 엉뚱한 곳이었다. 배는 파도에 의해 파손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임충이 강알」이라 했다 한다. 하우목동 포구 북쪽에 있다.

□ 진 여

「진」은 「긴」의 제주어이다. 포구로 들어오는 길목에 길게 뻗어있다 해서 「진 여」이다.

□ 종달이 할망여

「종달이」는 구좌읍 종달리(終達里)이다. 「할망」은 할머니의 제주어이다. 「여(嶼)」는 넓다란 암반을 말한다. 즉 종달리 태생 할머니와 관계있는 암반이란 얘기이다.

예전에 종달리에서 시집온 할머니가 살았다. 천초 해경(許採)시 그녀는 천초를 채취하고 육지로 해엄쳐 오다 너무 지쳐 이곳에서 쉬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자주 그랬던 모양이다. 이런 탓에 이 「여」를 「종달이 할망여」라 했다.

□ 방 앓 여

「우뭇개(하우목동 포구)」 옆에 있었다. 방파제를 시설하면서 발파해 버렸지만 「방아」 같이 둥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쟁 반 여

「쟁반」같이 작으며, 예쁘고, 둥그랗다 하여 명명되었다. 하우목동 포구내에 있다.

□ 코 진 여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길게 뻗은 코지(岬) 앞에 있다 하여 붙여진 여(嶼)의 이름이다.

□ 세 우 통

낚시 미끼로 많이 이용되었던 「새우」가 많이 잡혔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하우목동포구 물양장 자리를 말한다.

□ 우병에 알

「병에」하면 흙덩이를 말한다. 하우목동 남쪽에 위치한 이곳은 토질이 질퍽한 편이다. 곡식을 파종하기 위해 쟁기질을 하면 흙덩이가 많이 생긴다. 소로 쟁기질을 하면 흙덩이 때문에 「소우(牛)」 흙덩이는 「병에」 알은 「아래쪽」, 소로 쟁기질을 하면 흙덩이 쟁기는 지경의 아래쪽이란 뜻이다.

다른 설은 (島)씨 조상이 살았던 집터 아래 해안이라는 데서 연유했다는 얘기도 있다.

□ 셋 모살개

예전에 상·하우 목동은 우목동으로 통칭되었다. 우목동에는 백사장이 세 곳 있는데 가장 넓은 곳은 「큰모살넷기」, 가운데 것은 「셋모살개」, 작은 곳은 「죽은 모살넷기」이다.

이런 경우는 「개」 「원(垣)」을 연상하면 된다. 밀물일 때면 바다지만 썰물이면 모택터이 생겨 안쪽에는 바닷물이 빠지지 않아 개(垣)를 형성한 데서 지칭되었다. 하우목동 포구 근처에 있다.

□ 안 조랑개

자금은 매립되어 버렸지만 포구 근처에 있었다. 「안」은 안쪽, 「조랑」은 「작은」의 제주어이다. 「조랑내」 「조랑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즉 안에 있는 작은 포구(개)이다.

□ 마부름개

마바람(南風)에 안전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우목동의 현재 포구이다.

□ 넓메역 작지왓

「넓미역」이 자생하는 「자갈밭」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하우목동 1종공동어장에

서 구좌읍 종달리 근접 해안까지 질펀하게 펼쳐진 넓미역이 자생하는 「자갈밭」을 말한다.

□ 우뚝개

지금의 하우목동 포구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우목동(牛目洞)」이란 동 명칭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앞의 「우목동」 유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슬픈 사연이 전해온다. 해방전의 얘기라니 전설이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70여년 전의 일이다.

「웃우뚝개」에 젊은 손씨 부부가 살고 있었다. 손(孫)씨는 건강하고 잘생긴 뱃사공이었고 부인은 상군 해녀였다.

어느 가을 날, 손씨는 장사차 며칠 예정으로 인천에 가게 되었다. 인천에 도착한 그는 장사로 왕래가 있는 어느 양반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그 집에는 집주인의 딸인 노처녀가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 양반집 아들과 정혼을 하였고, 장성하여 그와 약혼까지 했는데 약혼자가 급환으로 죽고 말았다. 사연인 즉,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 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양반 체면에 재혼을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처녀 혼자 독수공방을 한다는 것이다.

처녀는 손씨의 장부다운 기풍에 반하여 그가 올 때마다 몰래 훑쳐보며 흠모하고 있었다. 일이 공교롭게 되려다 보니 며칠 예정인 일정이 늦어지고 말았다. 날씨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이 탓에 손씨가 인천에 묵은 기간은 두 달이 더 되었다. 안 그래도 노처녀는 손씨를 흠모하던 처지라 그들의 사이는 집주인 몰래 가까워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안 집주인은 딸을 불쌍히 여겨 “여기서는 내 체면이 있으니 같이 살아가는 안 되지만 제주에 가서 살려거든 가거라” 하고 허락하였다.

날씨가 풀렸다. 손씨가 노처녀와 포구에 나와 배를 타려고 하니 장사배에 여자는 태울 수 없다고 노처녀를 실어주지 않았다. 손씨는 노처녀에게 “살고 있으면 꼭 찾아오겠소” 다짐을 하고 배에 올랐다. 처녀는 선창가에 서서 떠나가는 배를 망연히 바라보다 바다에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며칠후 배는 「우뭇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얼굴을 알 수 없는 여인의 시신이 밀려와 있었다. 손씨가 이 시체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시체의 주인공은 인천 양반택의 노처녀였다. 손씨는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냈지만 하는 일마다 낭패만 거듭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지만 그 자식들도 잘 살지를 못했다. 몇 년 후 이 사실을 안 그의 자식들이 정성을 다해 그녀의 무덤 앞에 제수를 차리고 제를 지냈더니 그때부터 손씨의 자식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 중앙동(中央洞)

1969년 이전만 하더라도 연평리에는 일정한 이(里)사무소가 없었다. 1968년 서광리 오영돈(吳永敦)씨가 이장에 임명되자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 그는 김화화(金和花) 할머니로부터 대지를 기증받고 재일교포의 후원으로 현 종합식당 자리에 이사무소를 신축했다. 1969년이였다. 이사무소가 연평리 중심지에 들어서자 지금의 노인정 자리에 보건지소, 그 옆으로 어촌계 사무실이 신축되었다.

지금 이 곳을 보면 연평초등학교 쪽, 그러니까 노인정 앞쪽에는 넓은 공지가 있다. 오영돈 이장은 이 곳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들을 한 쪽으로 건축토록 권장했다.

1976년 구좌농협 우도지소가 신축되게 되자 이 부지를 농협 소유로 이전하기 위해 관계자는 지주를 찾았다. 결과 김화화 할머니의 친척이 나타나고 현 공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꿈은 지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사무소를 중심으로 우도면에 상주하는 관공서들이 하나 둘 들어섰다.

우도의 중심지라 해서 중앙동으로 명명된 것은 1970년의 일이다.

제 2 절 五 逢 里

□ 오봉리(五逢里)

1986년 4월 1일 구좌읍 연평출장소가 우도면으로 승격되면서 12개 자연마을이 2~5개씩 합병, 4개의 행정리(行政里)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흥(周興),

전흥(錢屹), 삼양(三陽), 상·하교수동(上·下古水洞)이 오봉리가 되었다.

오봉리는 다섯오(五)자와 만날봉(逢)자를 사용, 다섯 마을이 한데 뭉쳤다. 또 는 만났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 주흥동(周興洞)

주흥동은 우도면 4개리 12개동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다. 동세(洞勢)가 약한 관계로 고루 변영하라는 뜻에서 두루주(周)와 일어날 흥(興)자를 사용 주흥동이라 했다 하나 이 유래는 글자를 직역했다 할 수 있고, 이 마을 유래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다.

예전, 주흥동은 연평리 11개동(중앙동 신설 이전) 중에서 가장 부유한(몹시 가난한 자도 없고, 그와 반대로 큰 부자도 없이 고루 잘사는) 마을이었다는 데서 연유했다는 설과 「돈올래(錢屹洞)」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마을 명칭도 돈올래와 관계가 있다고도 한다.

근해를 항해하던 상선(商船)이 태풍을 만나 난파하였는데 배에 실려 있던 엽전(銅錢)이 많이 올라온 길목이라는 마을이 「돈올래」이듯이 그 때 ‘돈을 많이 주는 마을’이라 하여 「주흥개」라고도 하고 가운데(中)에 개(浦口)에 인접한 마을이라서 「중개」라고도 불려왔다 한다.

일설에는 과부 아들 「송중이」의 슬픈 사연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옛날 이 마을에 미역장사를 하는 남편과 「똥배질은 예펜」이란 별명을 가진 똥똥한 마누라가 살았다. 그들 사이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도일(渡日)했고, 작은 아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부만이 살았다. 그들 부부는 부지런하기 그지 없었다. 마누라는 물질을 잘하여 미역 채취는 물론 전복 등 기타 해산물 채취도 우도에서 소문날 정도였다.

어느 날 남편이 본도로 미역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돌풍을 만나 배가 뒤집혀 죽고 말았다. 마누라는 몇 날 며칠을 슬피 울며 통곡하였지만 한번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갑자기 닥친 불행에 그녀는 일손을 놓고 몇 달을 보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녀는 앓아 있을 수만도 없었다. 물질을 시작하면서도 해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 물질을 하곤 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해녀

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어느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해녀들과 떨어져 자맥질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 떨어져 있던 해녀 한 사람이 “똥배질은 예펜이 안 보였져! 태왁(드렁박)만 있져!!” 하고 소리쳤다. 물질을 하던 해녀들이 모여들었다.

『어이구! 이 예펜네 죽은 것 똥다!』

다른 해녀의 외침이었다. 전복을 따다가도 물숨이 여유 있을 때 나오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수가 있었다. 많은 해녀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호오이--!』

긴 숨비소리의 뒤를 이어 처량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많은 해녀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모여들었다. 그곳에는 과부가 슬피울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해녀들이 그녀를 에워싸 해안으로 나왔다. 그녀는 곧 실신했고 해녀들은 그녀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붙들고 잔디밭으로 옮겼다.

『이 예펜네 눈(수경)이랑 수건은 어떻 해신고?』

옆에서 마누라의 손발을 주무르던 한 해녀의 놀란 목소리였다.

“제매? 제매?” 모여 웅성거리던 해녀들 모두 놀란 표정이었다.

『이 예펜네 언제 머리 깎아시냐?』

그리고 보니 과부의 머리가 단발되어 있었다. 놀란 해녀들은 무당을 불러왔다. 푸닥거리가 시작되었다.

얼마후 깨어난 과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전복 두 개를 보고 물 속에 자맥질을 하고 보니 그것은 전복이 아니고 낚잔 두 개였다. 이상히 여긴 그녀는 낚잔을 가지려고 하니 낚잔이 있던 바다 밑이 갑자기 사람이 사는 「구들(방)」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방은 아랫마을의 구멍가게 주인 방과 흡사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도 바로 가게 주인이었다.

“이제 당신은 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는 그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발버둥을 치며 그곳을 피하려 하자 그는, “이제 당신은 나를 피할 수 없소. 이것이 증거요.” 하며, 머리를 잘라 가지더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몸이 성치 않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당 출입이 잦을 수밖에.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출입하던 이 마을에 사는 송씨 무당의 출입은 더욱 잦아졌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과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다. 원래 그녀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어서 이웃에서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 부끄럽게 생각한 과부는 마을을 떠날 것을 계획했다. 어느 이른 봄날, 그녀는 「대마도」로 출가하는 해녀들을 따라 마을을 떠났다. 과부는 대마도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이름을 「송중이」라 했다.

칠년 후, 그러니까 「송중이」가 일곱살이 되던 해 그녀는 귀향, 아들을 송씨 무당에게 맡겼다. 자손이 없던 송씨는 「송중이」를 호강스럽게 키웠다. 그러다 보니 해염도 칠 줄 몰랐다.

어느날 「송중이」는 큰 물통에서 나뭇잎으로 배를 만들어 띄우며 놀다 실족하여 물에 빠지고 말았다. 수영할 줄을 몰랐던 송중이는 ‘이래작’ ‘저래작’ 곱세기(돌고래) 애기춤을 추듯하였다.

이것을 보고 있던 동네 아이들은,

“중이 잘 한다(헤엄친다). 잘 한다.” 하며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어린 아이들은 송중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양을 수영연습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그가 물을 많이 먹고 기진맥진하여 물 속으로 잠기니 놀란 아이들이 “중이가 물에 빠졌저! 중이가 물에 빠졌저!” 하고 외쳐대기 시작했다. 이웃에는 김씨는 아낙들도 있었지만 쥐가 물에 빠져서 애들이 좋아라고 외쳐 댄다고 생각해 내다 보지도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늦게까지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송씨 무당은 ‘중이’를 찾아 나섰다. 수소문 끝에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알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 아들의 시신을 건져 올렸다. ‘송중이’가 죽은 후 송씨도 화병으로 시름시름하다 죽고 말았다. 충격을 받은 과부는 아들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 무당이 되어 살다 죽었다 한다.

「송중이」의 이런 슬픈 사연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중개」라 했고 이를 한자식 표기로 개칭하면서 「주홍동」이라 했다 한다.

□ 전흘동(錢屹洞)

이곳은 속칭으로 「돈올레」라고 부른다.

옛날에 상선(商船)이 전흘동 앞바다를 지나다 돌풍을 만나 난파하였다. 배는 몰아치는 돌풍에 밀려 「전흘동」 가까운 해안에 좌초하였는데 배에 싣고 있던 엽전이 바다 밑에 깔렸다.

엽전은 파도가 칠 때마다 조금씩 「전흘동」 해안에 몰려들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엽전을 주어 부자(富者)가 되었다 한다. 다시 말해서 돈이 오는 길목, 올레는 표준어로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좁은 길목’을 말한다.

다른 유래는 「돈」과 관계되는 설로 「돈올동」, 「돈오른동네」라고 한다. 즉 부자 동네, 부촌(富村)이란 뜻이다.

이 마을에 입주한 사람들은 바다의 혜택으로 살았다. 파도가 치면 해변에 「실갱이(거름용 해초의 일종)」가 뿌리채 뽑혀 무진장 밀려 왔는데 이 해초를 모아 경작지에 거름을 잘 하니 해마다 풍작을 이루어 「전흘동」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가 되었고 마을은 자연히 부촌이 되어 「돈 많은 동네」가 되었다 한다.

□ 고수동(古水洞)

고수동의 옛이름은 「예물동네」이다. 「예물」이란 하고수동에 있는 용천수를 말한다.

1842년 우도에 목장이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부터 「예물」과 주흥동의 「산물」이 있었다고 전해오는 것을 보면 오래된 샘물인 것은 틀림없다.

설촌이후 인구의 증가로 「고수동」이 상·하(上·下)로 분리되었는데 「예물동네」는 지금의 하고수동을 말한다.

이 물은 「이물」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예전에는 수량이 풍부하였다. 우도에는 원래 생수가 없었다. 왜인(倭人)들이 이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음료수가 없어 온 섬을 헤매고 다니다가 「고수동」에서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팠더니 용천수가 펄펄 쏟아져 나왔다 한다. 그 후에도 이 샘은 용수량이 풍부하여 우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샘의 뒷퉁산에 집을 신축한 후부터 물이 솟지 않아 오늘에 이르렀다 한다.

「이물」은 왜놈(倭人)이 발견했다는 데서 유래하였으며 「조일리(朝日里)」에 있는 「왜(倭)무덤」과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 즉 「왜(倭)」가 「예」로 해석되어 한자식 표기를 하면서 「옛물」이 「고수(古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자 그대로 「옛물(古水)」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옛 예 물

「상고수동」의 속칭이다. 「상고수동」과 「주흥동」 사이에 있다. 우도에 입경 허가가 나고 사람이 많이 모여살게 되자 「예물」과 「산물」에서 용출되는 용수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사람들은 수맥을 찾아 해매던 끝에 이곳에 우물을 뚫었다. 그러나 용천수는 없었고 비가 와야 봉천수가 고였다.

「예물」 윗쪽에 있다 해서 「윗예물」이다. 100여평이 훨씬 넘는데 「전흥동」, 「삼양동」 「상·하고수동」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했다.

□ 중개(中垣)

주흥동의 옛 명칭이다. 이곳에도 두가지 설이있다.

하나는 남쪽 천진리 「하늘이개(天津浦)」와 북쪽 전흥동 포구 사이에 위치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하나는, 서북풍이 세게 부는 날이면 이 「개(垣)」에 난파선의 잔해라든가 바다에서 조난당한 어부 및 선원들의 시신이 많이 밀려왔다. 즉, 죽은 것(잔해와 시체)들이 많다 하여 「죽은개」로 호칭되었던 것이 「주검」은 지역명칭에 나쁘다 하여 「중개」로 변경했다는 설이다.

□ 작은구미, 큰구미

「구미」란 북한어(北韓語)로 ‘바닷가나 강가의 꽃이 길게 뻗고 후미지며 흰 곳’을 말한다. 「죽은」은 부사로서 제주사투리로 「작은」을 뜻한다.

주흥동 해변가에는 후미지며 휘어진 곳이 두 군데 있다. 면적이 좁은 곳은 「죽은구미」, 큰 곳은 「큰구미」이다.

주흥동과 하우목동 경계표시인 「북돌코지」 북쪽에 있는 것은 「큰구미」, 작은 둔덕 넘어 면적이 좁은 곳은 「죽은구미」이다.

□ 진코지(岬)

「죽은구미」와 「큰구미」를 형성시키며 바다쪽(서쪽)으로 뻗어내고 길게 뻗은 「빌레(반석)」를 말한다. (진 : 긴, 길다)

□ 엉챙이 알

날 때부터 윗 입술이 찢어져 있는 사람을 언챙이라 한다. 주흥동 해변가에 험한 바위로 형성된 곳이 있는데 「언챙이」와 비슷하다 해서 「엉챙이」라 했다한다. 「알」은 「아래(下)」를 뜻한다. 즉 날카로운 바위와 돌이 많은 곳의 밑을 얘기한다. 해방 직후 좌초된 화물선의 잔해가 밀려왔던 곳으로 유명하다.

□ 멜개(鰐垣)

「멜」은 멸치, 「개」는 멸치를 가두기 위해 돌을 모아 원형으로 둘러놓은 담장을 말한다. 「원(垣)」인 것이다. 「멜개」는 멸치를 잡기 위해 해변가에 형성된 곳(串)의 안쪽이나 그와 비슷한 곳을 일면(一面), 혹은 2~3면을 돌로 독을 쌓았다. 이곳에 밀물시 들어온 멸치가 썰물이 되면 갇히게 된다. 이것이 「멜개」이다.

40여년 전만 하더라도 “멜 들었져!” 누군지 알 수 없는 외침에 「쭈바지」와 「구덕」을 들고 멸치를 잡으려 「개(垣)」로 내달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 당과 당알

주흥동 해변, 890번지 앞쪽에 「할망당」이 있다. 해녀나 어부들이 일년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이다. 즉 마을주민의 여러가지 일을 지켜주는 신(神)이 거처하는 장소를 「당」이라 한다. 마을의 안녕을 수호하는 「할망(할머니)신」이 좌정해 있다 해서 「할망당」이다.

이곳에서는 일년의 안녕은 음력 정월에, 각종 사안이 발생시는 바로 직전에 「할망신」에게 무사를 기원한다.

「알」은 아래(下), 「당알」은 당이 있는 아래쪽, 바다쪽을 얘기한다. 그 쪽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물(육지)쪽은 위, 바다쪽은 아래라 칭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 큰원(大垣)

「멜개」는 그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규모가 큰 것은 「큰개」, 작은 것은 「좁은개」이다. 여기서는 「개」를 「원」으로 표시한 것이 특색이다.

□ 북돌고지(岬)

주홍동과 하우목동의 경계이다. 주홍동 해안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반석이다. '북쪽으로 돌출된 코지'이다.

□ 장통알

「북돌고지」 남쪽, 「북돌고지」는 해안에 있고, 「장통알」은 위쪽 물의 지명이다. 이곳에 있는 밭(田)들 모형이 「장통(길쭉한 장통)」 같다 하여 생긴 지명이라고도 한다. 주홍동과 하우목동의 경계에 있다.

다른 유래는 우도는 입경(入耕)허가가 되기 전까지 말을 기르는 목장지였다. 이곳이 수심이 깊어 말을 본도로 실어 나르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해안이 울퉁불퉁해 말이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목자들은 말의 다리에 「장통(간통)」을 끼워서 돌에 의해 말의 다리가 상하는 것을 방지했다 한다. 여기서 유래된 것이 「장통알」이라 한다.

□ 곤여물

우도의 음료수는 모두가 봉천수(奉天水)이다.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웅덩이에 고인 물을 귀중히 여겼다. 물이 우묵한 곳에 고였다 해서 「고인물」. 더 많은 물을 보이기 위해 인력을 이용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어서 생활용수로 이용했다. 이런 과정에서 고인물이 변음되어 「곤여물」이 되었다.

□ 모살개(沙垣)

「큰구미」 바로 옆에 있다. 썰물일 때면 백사장이 드러난다. 밀물에 밀려 들어왔던 멸치떼가 모래 둔덕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된다. 이쯤되면 사람들은 「쭉바지」를 들고 「모살개」로 모인다. 자연적으로 원(垣)이 형성되는 것이다. 백사장에 생겨난 「개」라 해서 「모살개」이다.

□ 앞바당

「바당」은 바다의 사투리이다. 주홍동의 앞바다. 주홍동과 「조쪽 사이」 「박출

입이 용이한 곳을 말한다.

□ 앞 동 산

「동산」은 고개, 지면이 가운데는 높고 사면이 비탈진 곳이다.

주흥동 앞(하우목동)쪽에 있는 높은 둔덕이다. 이곳에 서면 주흥동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 산 물 깍

「깍」은 「가」의 변음된 된소리이다.

「산물」은 생수(生水)를 말하며 여기서는 용천수(湧泉水)를 말한다.

「산물」의 바깥쪽에 위치한 곳이라 해서 「산물깍」이다. 이곳은 「포구(중개)」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다. 예전에 태풍이 몰아칠 때는 어선들을 이곳으로 대피시켰다. 지금도 이곳에 서면 “브름불켜, 배 안터레 들어매라!”는 어부들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온다.

□ 산 물 통

「산물깍」안쪽에 위치해 있다. 썰물일 때는 물이 솟아나지 않지만 밀물이 시작 되면 바닷물이 밀려옴에 비례하여 용출량이 많아진다. 물이 귀한 이곳에서는 염분이 많은 이 물을 「산물(生水)」이라 했다. 가뭄이 들면 동네마다 파 놓은 우물은 마르기 마련, 그러면 우도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허벅」을 지고 이곳으로 몰렸다. 예전 가뭄시에는 이 「산물」이 우도의 생명수였다.

물이 솟는 통이라 해서 「산물통」이다.

□ 까 막 동 산

주흥동 966번지 앞에 바다를 향해 서 있는 두개의 방사탑(防邪塔)을 말한다. 이곳에 까마귀가 자주 앉는다 해서 「까막동산」이라 부른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잘못된 설이다.

제주의 선인들은 풍수지리적으로 마을에서 봐서 허(虛)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에 2~3m의 돌탑을 쌓고 꼭대기에는 새(鳥) 모양의 돌을 올려놓았다. 이때 새는 까마귀를 뜻했다. 당시 우리의 선조들은 까마귀가 신(神)의 사자로서 재앙을 쫓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연유에서 「까막(까마귀)동산」이라 명명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 큰 · 작은동산

주흥동에는 세 군데의 동산이 있다. 「앞동산」과 「큰동산」, 「작은동산」이다. 동산이 높다 하여 「큰동산」, 작다 해서 「작은(작은)동산」이다.

□ 뚝 병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서는 ‘웅덩이’를 뚝병이라 한다.

주흥동과 전흥동 사이에 있다.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둔덕을 쌓아 물을 가 두었다. 독을 쌓았으니 물이 ‘번번히(높낮이가 없이 널따랗다)’ 고이게 마련이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 ‘둔덕’의 ‘둔’과 ‘번번히다’의 ‘번’자를 따서 ‘둔번’이라 호칭되었던 것이 변음되어 ‘뚝번’이 되었는데 「뚝병」으로 와전되었다 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독을 쌓고 물을 저장한 곳이 전라 · 충청도 지방의 웅덩이와 비슷하다 하여 「뚝병」이라 지칭한 것이 아닌가 한다.

□ 물 코

둔덕을 쌓고 바닷물을 저장했으니 물이 들고 나는 곳이 있기 마련이다. 물이 들고 나는 곳이라 해서 「물코」이다.

□ 개 와 당

하고수동과 비양동 사이 백사장이다. 제주방언으로 「호주머니」를 「계와」라 한다. 호주머니는 대개가 입구는 좁고 안쪽은 넓다. 이곳을 잘 살펴보면 밖은 좁고 안쪽은 하얀 모래로 덮여 넓게 보인다. 40여년전만 하더라도 멸치어장이었다. 호주머니에는 물건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다. 이곳 역시 멸치가 한번 들어가면 나가지 못했다. 이런 연유에서 「개와(호주머니)」와 같은 마당이라 해서 「개와당」이다.

어떤 이는 「개밭(포구)」에 멸치가 많이 잡히는 곳이므로 「개(垣)」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개와당」이라 한다고도 한다.

또 이곳을 「독진포(獨津浦)」라고도 한다. 옛날 육지부에서 작은 배 한 척이

「개와당」 입구 「바중드리」라는 코지(串)에 상륙했는데 한 사람만이 타고 있었다 해서 「독진곶(獨津串)」이라 했다. 이로 인해 그 곶(串)안에 포구와 같은 백사장 이 있다 해서 「독진포」라고 불리웠다 한다.

□ 옷안는 봉오지

하고수동 해안(744번지 앞)에 있는 돌 봉우리이다. 이곳에서는 가마우지(물새)를 「옷」이라 한다. 「봉오지」는 봉우리의 방언. 즉 '가마우지가 많이 앉는 봉우리'라 해서 「옷안는 봉오지」.

□ 사장(沙場)

하고수동 712번지 일대 개와당 물쪽을 말한다. 지금은 경작지로 변모했지만 예전에는 모래밭이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사장이다. 최근에는 이곳에 버스정류소가 시설되었다.

□ 늪은이 물 알

옛날 늪은 부부가 살면서 집안에 조그마한 구덩이를 파서 봉천수를 받아 식수로 이용했다 한다. 이 물이 「늪은이 물」, 「알」은 「아래」의 방언이다. 즉 「늪은이 물 아래 쪽」이란 뜻이다. 상고수동에 있다.

□ 수덕(壽德)동산

상고수동 1089-1번지 돌동산 지역이다. 조선시대부터 이곳에 「당」이 있었다. 이 당은 아름드리 왕석으로 둘러싸였는데 사람들은 이 곳에 울긋불긋한 천을 두르고 가족과 자손들의 안녕과 자신의 무병장수를 빌었던 데서 비롯되었다. 당은 191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에 미신타파라는 마명하에 훼손되었다.

□ 작은 수덕

수덕동산 동쪽에 자리한 작은 둔덕을 말한다.

□ 판 통

우도는 섬이므로 물이 귀했다. 봉천수가 많이 모일 것 같은 곳이 있으면 인력

을 동원 우물을 만들었다. 80여년전 이곳에 인위적으로 우물을 만들었다 해서 「관통」, 즉 사람이 관 우물이란 뜻이다. 10년 후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 수량이 모자라자 더 많은 물을 받기 위해 보수를 했다 한다. 또한 이곳을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받는 곳이라 해서 「천수(天水)」라고도 한다. 하고수동에 있다.

□ 구 진 물 통

말 그대로 「구정물」이 모인 구덩이 또는 연못을 뜻한다. 이 경우는 우물이라 표현해야 할 것이다. 우도는 물이 귀한 곳이기엔 한 방울의 물도 아껴야 했다. 「관통」에서 음료수로 사용하다 버리거나 넘친 물은 밑의 「구진물통」으로 모여 팔래나 우마 급수용으로 사용하였다.

제주 본도인 경우 수량이 풍부하거나 질이 좋은 생수인 경우 다단계식 샘물이 많으나 우도에는 이 「구진물통」이 유일한다.

예물(古水)근처에 있다.

□ 까 막 동 산

방사탑(防邪塔)이다. 하고수동은 남쪽과 북쪽이 허해서 마을에 재앙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남쪽에는 「수탑」, 북쪽에는 「암탑」을 쌓았다. 원래 이런 탑을 쌓을 때는 그 속에 「누금(우금=밥주걱)」이나 「술(헌술)」을 넣고 2~3m 높이로 쌓았다. 밥주걱은 술의 밥을 긁어 담듯이 밖의 재물을 모아들이라는 뜻이고, 술은 무서운 불에도 인내력이 강하므로 그 마을의 어떠한 재난도 이기라는 뜻이다.

수탑은 암탑보다 높고 뾰족하며 암탑은 낮고 납작하다. 탑의 정상에는 새 형상의 돌을 올려 놓았다. 이때 이 새는 까마귀를 뜻한다. 그래서 「까마귀동산」이 줄어 「까막동산」이 되었다.

여기서는 까마귀가 와서 자주 앉는 곳이라 불려지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 장 태 코

하고수동 712번지 앞에 「양푼」 모양의 큰 분지가 있고, 지금도 바다쪽으로는 갈라진 곳이 있다. 비가오면 갈라진 곳을 통해 빗물이 바다로 스며들었다. 이곳을 「장태코」, 즉 양푼 모양의 큰 절그릇의 코라는 뜻이다.

□ 동 냥 알

「동냥」은 '먹을 것이나 돈푼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한다. 제주방언으로 「동냥바치」는 거지를 뜻하는데, 여기서 '바치'는 생략되었다. 「동냥바치」가 모여 살았던 장소의 아래쪽이라는 뜻이다. 「알」은 아래의 방언이다. 과래가 많이 생산되어 이것을 얻으러 오기 때문에 「동냥알」, 전흘동에 난파선의 염전들이 많이 올라와 이것을 주우러 「동냥바치」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알」이라 하기도 한다.

□ 마주목 거리

주홍동, 상고수동, 하고수동의 경계선인 4거리를 말한다. 이 거리는 우도의 중심지였다. 오봉리의 禹奉水(78세)옹은 “이 거리가 중요한 곳이라, 연평리(演坪里), 소섬사람이 여기 모두 모여서 각종 시비 가리기, 술먹기, 노름·오락과 향회를 열고, 초저녁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 소섬의 대소사는 여기서 결정되어서” 하며 몇십 년 전의 일들을 회상한다.

「마주목」은 「먹구슬나무」의 제주어이다. 6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안길 포장 때문에 그 나무는 베어졌지만 지명은 남아 있다.

□ 유치원 거리

삼양동과 상고수동 경계선을 말한다. 이조 고종시대부터 이곳에 유치원이 있었다한다. 그래서 명명된 것이 유치원 거리이다. 필자가 “일종의 서당(書堂)같은 것 아니었느냐”는 반문에 禹奉水(78세)옹은 “아니여! 요즘같이 유치원이라 했어, 고종 때는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문을 가르쳤고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과 신식공부를 시켰주.” 하고 역정을 낸다.

우리 나라에 유치원이 생긴 것은 1909년 함경북도에서 정토종포교자원(淨土宗布教資圓)에 의해 설립된 나남유치원(羅南幼稚園)이 처음이다.

이전 1897년 부산유치원, 1900년에 인천유치원, 경성공립유치원이 있었으나 이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시설이었다. 1907년 학부관제가 개정되면서 유치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부국에서 다루게 되었고, 1909년 유치원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면 교육선각자들이 많았던 우도에도 1900년초 유치원이 있었을 법도하다.

□ 중백(仲佰)이 동산

고중백이란 사람이 살았던 높은 지대이다. 상고수동 1089-1번지를 말한다.

□ 탐다니 동산

예전에 연대가 있었던 곳이다. 제주도에서는 주거지보다 조금 높아 보이는 곳을 동산이라 한다. 즉 탐이 있었던 「동산」이다. 이곳이 바로 1973년 7월 13일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도 출신 김○○ 간첩이 여러 차례 출몰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지금은 예전의 탐(塔) 대신 경비초소가 들어서 대조를 보인다.

□ 개 우렁이

「탐다니 동산」 바로 아래쪽이다. 자연적인 형태는 「개(浦口)」형태이나 수심이 깊고 파도가 세어 배 접안이 어려웠다. 밖에서의 지형만을 감안해 접안했다가 상륙치도 못하고 떠나는 배가 많았다. 파도가 심해 배가 너무 출렁거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浦口)」 「출렁거린다 ⇒ 울렁거린다 ⇒ 우렁이」 곧 「개 우렁이」인 것이다.

□ 개 개 비 통

삼양동 810번지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봉천수가 고이는 웅덩이가 있었다. 물이 많아 고였으니 연못이 되었고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서식했다. 비가 오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요란했다. 개구리의 제주어는 「개개비」. 개구리가 많이 서식했다 해서 「개개비통」이다. 지금은 물이 없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이곳에서 땡땡이가 요란스럽게 울어 옛 병청을 되살리게 한다고 촌로들은 회상에 잠긴다.

□ 재우집 동산

고재우(高在愚)란 사람이 소유했던 전흘동 800번지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말한다.

□ 진 질 각

전흘동에 있다. 일명 「장로각(長路脚)」이라 한다. 사람들은 「다리(橋梁)」라 하면 길고 곧은 것을 연상한다. 이 길은 「진=긴」, 「질=길」, 「각(脚)=다리」, 그

래서 「진질각」 즉, 길이 길어서 다리와 같다는 뜻이다.

□ 오서방 동산

우리 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1784년 이승훈(李承薰)이 북경 북당(北堂)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데서 비롯된다.

1839년 앵베르(范世亨) 2대주교가 기해(己亥)박해 때 순교한 것을 시작으로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시 4, 5대 주교가 순교했다. 이때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오성덕(吳成德)이란 사람이 도피해와 숨어 살다 사망하자 이 곳에 묻혔다. 지금도 무덤의 흔적은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이런 탓에 이름은 생략하고 성씨만 따서 「오서방 동산」이라 불렀다.

삼양동 해안 786번지 일대의 동산을 말한다.

□ 오성덕의 굴

앞의 오씨가 숨어 살던 굴을 말한다.

이 유래에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병인(丙寅)박해 때 오성덕이가 피신해 입도했다는 설과 둘째, 1901년 신축란시(辛丑亂=濟州天主教亂=李在守亂), 셋째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순사들의 눈을 피해 숨어들었다는 것이다.

유래전승자인 우봉수 옹은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오성덕의 얘기를 들었다. 그때 60여년이 됐다면 대원이 대감(興宣大院君)이 섭정시였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한다. 한 자리에 앉아 있던 촌로들도 그게 맞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 망 루

예전에 연대가 있었던 곳이라 한다. 지금은 48년 4·3 당시 공비의 침투에 대비 허물어진 자리에 복원했다. 전흘동에 있다.

□ 돈올레 동산

전흘동의 유래와 같다. 「올레」는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좁은 골목을 말한다. 돈이 오는 길목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즉 돈이 오는 길목에 있는 「동산」이다.

□ 액탑(厄塔)

하고수동(下古水洞)의 「까막동산」과 같다.

□ 툰 동 산

지금은 매립되었지만 예전에는 분리되어 떨어져 있었다. 「툰」은 「파로」 또는 「판」의 제주어이다. 「판동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산」이다.

□ 감태구미

감태는 해초(海草)이다. 몸은 원형이며 앞은 두껍고 짙은 갈색이다. 전복의 먹이의 일종이다. 폭풍이 지나고 나면 감태가 뿌리째 뽑혀 해안으로 밀려든다. 구미는 휘어지면서 길게 뻗은 해안의 후미진 곳을 말한다. 파도에 밀린 감태는 후미진 곳에 모이게 마련. 이곳을 「감태구미」라 했다. 전흘동 해안 829번지 앞 일대이다.

□ 세 덕 바 지

미역이나 우뚝가사리 일제(一齊) 해제시 많은 해녀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몰린다. 그러면 「불턱(해녀들이 자맥질을 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다 언 몸을 녹이려고 마련해간 땀감으로 불을 피우기 위해 바닷가 반석(빌레) 위에 바람막이로 둥그스름하게 담을 에워싼 곳)」한 군데로는 모자란다. 그래서 이웃에 이웃하여 「불턱」을 세 군데에 만들었다. 「바지」는 「뱃」을 풀어 쓴 말. 즉 「불턱」이 세 군데 있는 곳.

□ 세 비 코 지

「세덕바지」에서 바다로 쭉 뻗은 코지(岬)를 말한다.

우도봉 정상울 쇠머리(牛頭)로 본다면 이곳은 「소의 꼬리(牛尾=쇠미)」이다. 「쇠미」가 변음되어 「쇠비」가 되었고 「쇠비」가 변음되어 「세비」가 되었다.

요즈음도 소의 꼬리로 요리한 음식은 보신음식으로 통용된다. 소의 꼬리가 그 만치 힘이 세다는 얘기이다. 이런 데서 연유한 탓인지 이 근처 동네에서 인물이 난다는 풍수지리적 속설이 전해 내려온다. 전흘동 해안 828번지 앞이다.

□ 세 비 툇 여

「여」는 바닷가 수심이 얕거나 썰물일 때 나타나는 암반 또는 돌을 말한다.
「세비(쇠미)」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여」이다.

□ 알·웃어깨

「세비코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세비코지」에서 바다를 향해 서면 오른쪽은 「웃어깨」, 왼쪽은 「알어깨」이다. 썰물시 바닷물은 「세비코지」 때문에 물이 좌우로 나누어진다. 그런 탓에 많은 고기들이 서식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오른쪽을 「윗쪽」, 왼쪽을 「아래쪽」으로 통칭해왔다. 이 지명도 이런 어원에서 비롯되었다.

□ 다리걸린 여(嶼)

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풍력(風力)이나 인력(人力)에 의해 움직이는 선박이 대다수였다. 이런 관계로 조난사고가 빈발했다. 어느날 전흥동 818번지 앞 해안에 있는 「여」에 시신이 떠올랐다. 썰물이 되어 살펴보니 시체의 다리가 「여」 틈 바구니에 끼어 있었다. 그래서 「다리걸린 여」가 되었다.

이 「여」는 썰물이면 나타나고 만조시에는 물속에 잠겨 그 위로 어선들이 드나들었다. 밀물이면 배가 드나드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해서 「다리걸린 여」라고 지칭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이는 확실치 않다.

□ 큰·족은 개(垣)

「개」는 원(垣 : 땀개 : 멸치를 잡기 위해 바닷가에 인위적으로 돌담을 둥그렇게 쌓아 놓은 곳)을 말한다. 「족은」은 작다의 제주어이다. 한 마을에는 여러 개소의 「개(垣)」가 있었다. 예를 들어 「개(垣)」가 세 곳이 있다면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큰개」, 다음은 「중개」 또는 「셋개」, 좁은 곳이 「작은개」이다.

□ 동치코지

전흥동 798번지 해안에서 바닷쪽으로 길게 뻗은 코지(岬)이다. 「큰개(垣)」앞에 있다. 「동치」는 황돔의 제주어이다. 지금도 이 코지에서 이끼로 문어를 사용해 주낙을 던져 놓아두면 일미터 이상의 「동치」가 잡힌다. 특히 5~6월 장마때는 「웁이(흑돔)」도 많이 잡힌다. 「동치」가 잘 잡힌다 하여 「동치코지」라 했다.

□ 박막루 밧

우도에서 물밭이 가장 거센 해역이다. 「막루」는 표준어로 「마루」를 뜻한다. 배들이 이곳을 지날 때, 사람 같으면 '박치기'를 하는 각오로 지나야 한다. 박치기를 하면서 넘는 마루라는 뜻이다. 아무리 잔잔한 날씨라도 조속(潮速)이 드세어 파도가 친다. 전흘동과 삼양동 경계에 있다.

□ 자 락

「오성덕의 굴」 아래쪽을 말한다. 치맛자락 같이 넓고 평퍼짐하기 때문에 치맛자락과 같다하여 「자락」이다. 삼양동 해안에 있다.

□ 난 여

자락 앞쪽에 있는 「여(嶼)」이다. 밀물일 때는 물 속에 잠기고 썰물일 때는 수면위로 나타난다 하여 「난여」이다. 삼양동 해안가에 위치한다.

□ 물썬원(垣)

제주에서는 바닷물이 나가는 것을 즉, 썰물일 때를 가리켜 '물이 썬져'로 표현한다. 「물썬원」에서 「물썬」은 '물이 썬다'의 준말이다. 원은 담(垣)을 얘기한다. 물이 썬면(썰물일 때) 나타나는 원을 말한다. 삼양동에 있다.

□ 자락머흘깎

「머흘」은 「자갈」을 뜻한다. 「깎」은 「꼴찌」이다. 「자락머흘깎」은 합성어인데 '자갈이 많이 깔려 있으면서도 평퍼짐하게 넓은 곳의 끝'을 말한다. 삼양동에 위치한 「자락」에 가보면 이 지명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 물그랑 동산

「물그랑」은 연자매의 제주어이다. 동산은 그 지역의 조금 높은 곳. 연자매가 있었던 동산. 상고수동 1222번지 일대이다.

□ 팽 풍 개

삼양동 해안 761번지 앞이다. 썰물이 되면 그 일대가 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암벽이 나타나고 암벽 앞에는 「개(垣)」가 형성된다.

□ 맹주할망여

예전 이곳에 「맹주」라는 할머니가 살았다. 그 노파가 우뭇가사리 채취시마다 이 「여(嶼)」에서 혼자 우뭇가사리를 뜯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삼양동 1081번지 앞에 있다.

□ 개데맹이여

전흘동 해안 818번지 앞에 있는 「여(嶼)」인데 개(犬)머리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곱은 여

「곱은」은 「숨다」의 뜻을 지녔다. 쉽게 생각해서 「숨은여」라 생각하면 된다. 수면에 보일듯 말듯한 여의 이름이다. 상고수동 752번지 앞 바다에 있다.

□ 물 여

말(馬)의 형태와 같다 하여 붙여졌다. 「오성덕의 굴」 해안에 있다.

□ 개 말 동 산

하고수동에 있다. 개(浦口)의 위쪽(머리)에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개 : 포구, 말 : 첫째, 머리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포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작은 둔덕이다.

□ 먹돌개(垣)

먹돌(구멍이없고 검정색이며 단단한 돌)로 담을 쌓아 만든 개(垣)이다.

□ 오분재기여

오분재기(전복과 같으나 아주 작음 : 떡조개)가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돌랭이 덕

전흘동과 상고수동 두 곳에 있다. 「돌랭이」는 작은 발을 일컫는다. 원래는 움푹하고 조그마한 발이었으나 그곳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한 후, 가져간 땀감으로 불을 피워 몸을 녹였다. 「덕」은 해녀들이 몸을 녹이기 위해 돌담을 쌓은 곳. 즉 작은 발에 조성된 「불덕」이란 뜻이다.

□ 비중다리

「독진코지」의 속칭이다. 「바쭈」은 「빠죽 : 물체의 한 부분이 쭈 내밀어 진 모양」의 제주어이다. 「쭈 내밀어 진 다리」가 와전되어 「비중다리」가 되었다.

□ 세 배 곶

「비중다리」 「독진코지」를 「세배곶」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귀양은 한 노인이 우도에 살았는데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이곳에서 왕궁(王宮)을 향해 세배를 드렸다 해서 불리게 된 지명이다.

□ 두린세미여

「두린」+「세비」+「여」의 합성이다. 「두린」은 「어린」의 제주어이다. 「두린아기」하면 「어린아이」로 해석된다. 「세비」는 앞에 설명했듯이 「쇠미=소꼬리」가 와전된 단어이다. 그러면 「어린쇠미여」이다. 즉 「쇠미 근처에 있는 어린 여」 다시 말해서 아직 크지 않은 작은 여를 말한다.

제 3 절 朝 日 里

□ 조일리(朝日里)

북쪽으로 상고수동과의 분기점인 「셋모살」에서 동청진동과 영일동의 「보섭봉우지」까지를 조일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계선이다. 구좌읍 연평출장소가 우도면으로 승격될시 비양동(飛陽洞)과 영일동(迎日洞)을 합병, 우도에서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을 맞이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비양동(飛陽洞)

제주도에는 양쪽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를 「동비양(東飛陽)」 「서비양(西飛揚)」이라 한다. 제주의 선인(先人)들은 제주 섬을 하나의 큰 학(鶴)으로 생각하여 서쪽 날개는 한림읍 비양도, 동쪽 날개는 우도의 비양도로 여겼다. 동비양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라 하여 「별양(陽)」, 서비양은 해가 지는 것을 전져 올린다는 뜻으로 「나타날 양(揚)」을 사용함으로써 동서의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했다.

우도의 비양도는 섬중의 섬이다. 이로 인해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비양도의 명칭도 이 작은 섬을 앞에 두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1930년대까지만 해도 우도의 공동관리 구역이었다. 당시 포제(酬祭)를 지낼 때에는 이 섬지역에서 공동채취하는 해산물을 판매하여 제수(祭需)를 마련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포제를 못지내게 되자 비양동의 공동기금(학교건축기금) 일부를 우도에 납부하고 비양동의 관할로 만들었다 한다.

그후 방축을 쌓아 비양동과 연결되어 '섬중의 섬'이 아닌 우도의 한 부분의 물이 되었다. 이로인해 비양도를 「안비양」이라 부른다.

□ 말뚝 박은 여

우도는 제주목(濟州牧)과 정의현(旌義縣)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제주목에 가깝고 지리적으로는 정의현이다. 우도사람 대부분이 제주목에서 이주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조시대만 하더라도 정의를 제주보다 멀리한 때문이라 하겠다.

당시 우도를 상·하로 나누게 되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제주목과 정의현의 경계, 즉 구좌 종달과 성산 시흥과의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직선으로 그어 동쪽은 상우도, 서쪽은 하우도라 하였다. 이때 경계선에 말뚝을 박아 표시를 하였다. 바로 말뚝을 박았던 암석(여:巖)을 「말뚝 박은 여」라 했는데 와전되어 「말뚝 박은 여」라 부르게 되었다.

그때 우도 주민들의 반대로 상·하우도로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도가 북제주군 관할이 되었다.

□ 의무덤, 왜무덤 동산

이곳은 일본, 즉 왜(倭)와 관계한 유래가 있는 곳이다. 비양동과 영일동 사이에 위치하며 조일리 사무소가 인접해 있다.

전설에 의하면 왜구(倭寇)들이 우도를 침범하였다가 우도 사람들과 싸워 죽은 시체들이 묻힌 곳이라기도 하고, 일본 상선이 이 연안을 지나다 폭풍을 만난 배가 난파하는 바람에 선원들이 죽어 시체가 바닷가에 떠오르자 우도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묻은 곳이라기도 한다.

다른 일설은 태평양전쟁 당시 근해를 항해하던 일본 운송선이 적기에 의해 폭

격당해 폭파되었는데, 그때 선원들의 시체가 파도에 떠밀려와 묻힌 곳이라고도 한다. 태평양전쟁이라면 불과 50여년 전의 일인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고 보면 이는 어느 말쑥은 사람이 지어낸 말에 지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유래제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곳은 일본사람들의 시체가 묻힌 곳임에는 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의무덤」이란 「왜(倭)무덤」이란 뜻이다. 옛말로는 「왜」를 「예」라 하였다 하니 「의무덤」은 「왜무덤」의 와전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관심사는 ‘과연 이곳이 시체가 묻힌 진짜 무덤이냐?’하는 것이었다. 해방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있는(?) 몇몇 청년들이 이곳을 파본 일이 있었다고 하나, 결과는 인골(人骨)이 나왔다고도 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설도 있어 확실치 않다. 뼈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뼈를 갈아 약으로 먹었다가 미쳐버렸다는 공(孔)씨의 이야기를 옛이야기마냥 전한다.

비양동과 영일동 사이, 바로 「의무덤」 근처에 공씨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살았다. 그는 학질(말라리아)에 걸려 고생을 했다. 이 병에는 사람의 뼈를 갈아서 물에 타 먹으면 완쾌된다는 얘기를 들은 그는 발병시 전신을 뒤틀며 괴로워하다가도 정신이 들면 사람의 뼈를 찾기 위해 무덤가를 헤매고 다녔다. 어느 날 「의무덤」에서 고양이와 파 물고 다니던 뼈를 주어가져고 집으로 돌아왔다.

공씨는 이 인골을 솥에서 볶아 절구에 뿔었다. 그는 이 가루를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일이 있는 후부터 공씨의 정신에 이상이 생겼다. 학질의 특징인 ‘덜덜덜’ 떠는 행위는 사라졌지만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눈을 하얗게 차뜨고 거리나 바닷가를 배회하기도 하고, 헛소리를 치며, 해엄을 치듯 양팔을 하늘을 향해 허우적거리기도 했다. 가족들은 애만 태웠고, 공씨의 증세는 날로 심해져갔다. 그러는 사이에 두어달이 지났다. 가을이 되어 초가저붕을 덮는 시기가 되었다. 집집마다 저붕을 일기 위해 줄을 내었고(꼬았고), 그 줄들은 저붕 이는 날(덮는 날)까지 이슬을 맞아 잠이 들라고 밖에 쌓아 두었다. 어느 날 밤이 이슬하여 공씨가 밖에 나가더니 줄뭉치를 들고 들어와서 방에 걸었다. 가족들은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곤히 지는 그를 두고 밭에 나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 그때까지 계속 자고 있었다. 한밤중이 되어 그는 밖으로 나갔다. 가족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돌아다니다 돌아오려니 생각하고 그의 눈치만을 살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틀 뒤, 동천진동 사람이 고기를 낚으러 배를 타고 섬머리, 속칭 「광대코지」 뒤에 이르렀다. 이상한 물체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고 배로 전저 올랐다. 사람의 시체인데 목과, 허리, 다리에 짐줄을 칭칭 동여매고 있었다. 동천진동 사람은 시신을 싣고 「영장 싣는 개」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비양동에 사는 공씨여!” 누군가 아는체를 했다. 이 사실이 가족들에 연락되었고 가족들이 달려왔다.

“아이구! 이 양반아! 영 죽을 걸 사람괴기 먹음대가…….”

공씨 부인이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래서 공씨가 인골을 뺏아서 먹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우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혼이 있구만! 죽은 사람의 뼈를 먹어 부정타서 공씨가 죽었주!”하며 혀를 찼다.

□ 썩은 구미

비양동과 영일동의 경계에 있다. 예전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대개가 무동력이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난파되어 어부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우도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바다에서 죽은 시신이 많이 밀려들었다. 우도에서도 이 곳이 특히 심했다. 썩은 것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 「구미」는 북한어이며 바닷가가 길게 나와 휘어진 곳을 말한다.

□ 뱀 동 산

뱀이 많이 서식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40~50년까지만 해도 뱀이 많이 살았다. 474번지 부근에 있다.

□ 논 동 산

우도에서 유일한 논(畓)이 있었던 곳이며 높은 둔덕을 말한다. 지번으로는 567번지이며 1950년대 초반까지도 논농사를 지었다.

□ 구진물통

비양동 242-2번지 부근에 있었다. 지금은 매립되어 아담한 꽃동산이 조성되었지만 가축용과 생활용수(음료수는 아님)로 사용했던 물통이다. 「구진물」은 「구정물」의 제주어이다.

□ 절터

우도봉 동쪽에서 가장 가파른, 즉 단애(斷崖)의 상단 부분이다. 우도봉 푸른 잔디가 절벽의 검은 현무암과 직접 연결돼 있어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곳이다. 「절벽」이 와전되어 「절터」가 되었다. 20~30년전까지만 해도 이 곳에 소를 가두어 방목을 했다. 그 입구에는 「정낭」을 걸어두었던 구멍 뚫린 왕석이 서 있다.

절(寺)이 있었던 장소라는 설이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다.

□ 푸는체 곶(串)

우도봉 정상에 「키」와 닮았다 해서 붙여진 명칭이다. 조일리 산 27-1번지 부근이다. 「푸는체」는 「키」의 제주방언이다. 「점말래」 상단 부분 우도봉 정상에 있다.

□ 물그랑 판

비양동 242-2번지에 「볼그랑」(연자매)이 있었는데 연자매가 철거되면서 밑돌만이 남았다. 이것을 「물그랑 판」이란 한다.

□ 망동산

안비양(飛陽島) 동쪽 3번지에 있다. 예전의 연대와 비슷하다. 4·3당시 해안으로 침투하는 공비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시설되었다.

□ 한와지

저울이면 섬일수록 하늬바람이 세차게 몰아친다. 「한와지」는 안비양 북쪽에 있는데 비양도에서 하늬바람을 제일 많이 받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즉 「하늬바람 코지」라 한다.

□ 광대코지(岬)

안비양 초입에 있는 바위의 현상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는 작고 큰 기암괴석들이 많이 있다. 그 형상들이 마치 광대들이 춤을 추는 듯 하다.

□ 동·서등머흘

「머흘」은 「자갈」의 제주어이다. 이곳은 사람의 등과 같이 평퍼짐하면서도 넓다. 툇이 많이 자생하며 자갈보다 조금 큰 돌들이 널려 있다. 동쪽에 있다 해서 「동등머흘」 서쪽은 「서등머흘」이다.

□ 꿀 정 여

「동등머흘」 꿀 자락에 있는 「여」이다. 굴조개가 많은 데서 기인한다.

□ 불레낭 동산·불레낭 알

「불레낭」은 「보리수나무」의 사투리이다. 「불레낭」이 군락을 이룬 높은 곳이라 해서 「불레낭 동산」, 그 밑 바닷가라 해서 「불레낭 알」이다.

안비양 동남쪽 300미터 지점에 있다.

□ 즈른바위

「즈른」은 「짚다」의 제주방언이다. 안비양의 맨끝에 있어 비양도의 끝을 얘기한다. 예전에는 썰물일 때 「단물」이 솟아 목욕을 하기도 했다. 지금도 가물지만 않으면 단물이 조금씩 흐른다.

□ 산 물 통

즈른바위 밑에서 「단물(생수)」이 솟아 올라 고이는 조그마한 「물통」을 이른다.

□ 버난지 개(垣)

자연적으로 원(垣)과 같이 생긴 곳인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차게 치고 나면 거센 물결에 뿌리째 뽑힌 미역이 파도에 밀려 모이는 곳이라 하여 「개」라고 하였다.

「버난지」는 「파도에 의해 뿌리째 뽑힌 미역」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 먹돌개(垣)

비양도로 내려가는 지점, 비양동 64번지에 위치한다. 「개」의 주변에는 「먹돌(둥글며 단단하고 미끄러운 돌맹이)」들이 많다.

□ 안비양(飛陽島)

앞의 비양동을 참고했으면 한다.

동경 126°58', 북위 33°29'에 위치한 총 0.06km로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평평한 작은 섬이다. 무인등대가 있고 4·3당시 망을 보았던 망루도 있다.

지금은 거의가 외지인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섬의 해안에서 채취하는 해산물은 우도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평 풍 개

안비양에 있는 「개」이름이다. 주위가 마치 병풍을 두른 듯 하다는 데서 기인하였다.

□ 셋 불 톱

해녀들이 바다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지피는 곳.

해녀탈의장이 「큰불톱」자리였고, 「셋불톱」과 「죽은불톱」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있다.

□ 밀 물 개

「개(垣)」는 원래 밀물일 때는 담까지 물에 잠기고, 썰물일 때는 밀바닥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개는 바닷물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밀물이나 썰물이나 별 차이가 없다.

□ 장수발자국

안비양 남쪽 20m 지점, 비양동 15-1번지 부근 암반에 큰 발자국 형태의 흔적이 있다. 사람의 발자국이라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장수발자국」이라 명명했다.

□ 스 늑 바 위

안비양 초입에 있다. 앞의 「주른바위」가 비양도의 끝이라면 이 바위는 시작이

다. 즉 「순변바위」라던 것이 와전되어 「스늬바위」가 되었다.

□ 모 살 등 산

안비양 입구, 비양동 610-1번지 모래 둔덕을 말한다.

□ 심피왓 동산

비양동 627-1번지 부근 경작지는 토질이 단단하여 비가 오면 물이 제때에 빠지지 않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심피」는 습기가 많은 화산회토 또는 흙의 제주어이다. 「왓」은 「밭」의 제주사투리.

□ 새 통 거 리

우도에 인구가 불어나자 용천수가 없는 관계로 식수가 모자랐다. 비양동 주민들은 식수와 가축용과 허드렛물을 구분하여 물통을 짰다. 즉 새로 짰다 해서 「새통」, 그 물통이 있는 거리라 해서 「새통거리」이다. 현재 농협창고가 있는 곳이다.

□ 낭 등 산

예전에는 비양동 580-3번지에 나무가 있었다 한다. 나무가 있었던 둔덕이므로 「낭=나무」동산이다.

□ 유백이 동산

예전에 유복이란 사람이 비양동에 살았다. 그는 목동이었는데 비양동 657-3번지 일대에서 소를 방목한 후 풀을 뜯게 하고 자신은 높은 곳에 드러누워 노래도 부르고 낮잠도 잤다. 이런 연유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유래 전승자는 그가 지금 호남지방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 말한다.

□ 뒷 등 산

비양동의 앞이라면 「안비양」쪽이며, 뒷쪽은 「우도봉」쪽을 의미한다. 마을 뒤편에 있는 동산이라서 「뒷동산」이다.

□ 배 수

안비양과 우도와의 사이에 「드러선창」이 시설되기 이전에는 비양동에 포구가

없었다. 고깃배나 배를 정박시키려면 애로가 많은 주민들은 해안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의 한쪽을 인력으로 입구를 만들고 포구로 이용하였다. 한쪽으로 바닷물을 들어오게 했다, ‘물을 받았다(配水)’는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 불 락 통

「불락」이란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안비양 1번지 해안에 있다.

□ 석 등 머 흘

안비양 「광대코지」 바로 밑에 둥근돌이 넓게 널려있는 곳이다. 돌들이 사람의 등과 같은 반석 위에 있다는 데서 「석등머흘」이라 했다.

□ 똥내민 여

「동쪽으로 길게 뻗어나온 여(嶼)」라는 데서 연유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를 짧게 부르다보니 「똥내민 여」가 되어 버렸다. 「석등머흘」 부근에 있다.

□ 졸락코지(岬)

「졸락」은 「노래미」의 제주방언이다. 안비양에 있는데 이곳에서 「졸락」이 많이 잡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요즈음에야 모두가 낚시지만 20~30년전만 하더라도 곧게 뻗은 대나무로 만든 「참대(낚시대)」를 갖고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리고 고기를 낚던 기억이 선하다.

□ 들 물 무 루

안비양 「불락통」 부근이다. 물 흐름이 워낙 강해서 노를 젓고는 배가 물 흐름을 거슬러가지 못한다. 「들물」은 「밀물」의 방언, 「ㄹ루」역시 「마루」의 제주어이다. 쉽게 말해서 불흐름이 센 턱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듬북눌 알

금비(金肥)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변에 밀려온 해초를 모아 말린 후 경작지에 뿌려 거름으로 이용했다. 「안비양(비양도)」에는 거름용 해초들이 파도에 의해 많이 밀려왔다. 우도에는 특히 「실쟁이」란 해초를 채취 거름으로 이용했지만 파도에 의해 해변으로 밀려오는 해초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를 통틀어 「듬

북」이라 하는데 「듬북」을 잔디밭이나 길가에 말려서 쌓아 두었다가 거름을 줄 시기가 되면 내다가 밭에 뿌린다. 이때 「듬북」을 쌓은 것을 「눌」이라 하는데 「눌」은 「노적거리」를 뜻한다. 「듬북」은 「모자반」의 방언이다.

「듬북」을 말릴 때는 전 주민이 나서서 바람막이 될 장소를 찾아 각자가 「듬북」을 쌓기 때문에 「눌」이 수십 개가 된다. 「듬북눌」이 있는 아래쪽 해변을 「알」이라 한다.

□ 변 괴 통

여로부터 이곳에는 비양동 주민들이 음료수로 이용하는 조그마한 물통이 있었다. 여름이면 비양동 주민들은 「상파병」에 걸려 고역을 치러야 했다. 이런 현상은 한두 해가 아니었다. 해방 직후에도 우도의 다른 동은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비양동만 장질부사가 창궐했다. 이상히 여긴 주민들이 풍수사를 찾아갔다.

「변괴로다! 이 물이 변괴통이오.」

동네를 한바퀴 돌아본 지관(地官)은 이 물통을 매립하도록 했다. 그후 비양동에만 발생했던 변고는 사라졌다. 그래서 그 물통을 「변괴통」이라 했다.

지금 버스정류소 부근이다.

□ 멀뚱이 동산

안비양 「조른바위」 가기 전 「먹돌」이 많이 쌓여 동산을 이룬 곳이 있다. 이곳을 「멀뚱이 동산」이라 하는데 「먹돌동산」이 와전된 것이다.

□ 돈지 할망당

「두리선창」 지나 「안비양」 입구 오른쪽에 있다. 비양동 사람들이 일년의 안녕을 빌고 바다에 나갈 때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곳이다. 「돈지」라 함은, 비양동에서 배를 부리는 사람들이 음력 2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재물로 돼지고기(머리)만을 올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단다.

□ 두리선창

비양동과 안비양을 연결하는 다리를 말한다. 「두리」는 「다리」의 방언이다.

60여년 전 그러니 해방 전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안비양(비양도)은 대개가 농

경지였다. 비양동 사람들은 테우(떼배)를 이용해 이곳에 드나들며 농사를 지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면 움푹달짝도 할 수 없었다. 그뿐이 아니다. 비양동과 안비양의 거리는 120여 미터, 육지와 육지 사이의 물흐름은 거칠고 매서웠다. 썰물일 때도 물굽이는 허리를 넘었다. 토지가 척박하고 협소했던 비양동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십사숙고 끝에 '다리를 놓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가가호호에서 현금과 곡식을 모아 제주읍내 거주하는 공사관 십장 출신인 최남선이란 사람에게 공사를 의뢰했다.

그는 이론가도 숙련된 토목기사도 아니었다. 바다물막이 공사라는 것이 일반 매립공사와는 판이했다. 몇번 실패하다 보니 공사기간은 길어지고 자재와 인부는 계획량의 배가 투입되었다. 다리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임금을 제대로 지불치 못해 그는 붓매를 맞아 그 후유증으로 몇년 후 사망했다.

그러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59년 9월 16일 불어닥친 사라호 태풍은 비양동 사람들의 염원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다리선창」이 무너진 것이다. 이를 복구하는데 안비양(비양도) 바다 입어권을 2년 동안 포기해야 했다.

□ 안 고 팡

「수능바위」 옆에 있다. 생긴 모양이 초가집의 「고팡(곡간)」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물 코

비양동과 하고수동의 경계에 있다.

야트막한 골짜기이다. 비가 심하게 오면 이곳을 향해 지표수(地表水)가 바다로 흘러든다. 물이 많이 모여 흐르는 「목」이라 해서 유래되었다.

□ 영일동(迎日洞)

1970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후해동(後海洞)이었다.

이곳은 1844년(憲宗 10년) 김석린(金錫麟)진사가 정착하면서 자신이 주거지를 정하고 이웃하여 타인들이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진

사의 집 동쪽에 마을을 형성해 살았다.

이것이 「뒷바당」이다. 이 마을은 위치가 「섬머리(島頭峰)」 동쪽 바다에 인접하여, 또는 김진사집 뒤쪽에 위치했다 하여 「뒤바당」이라 불리우게 되었고 후에 한문식 표기를 하면서 「後海洞」으로 변경되었다.

영일동으로 개명된 것은 1970년으로 마을에 자주 일어나는 홍사(凶事)도 홍사이러니와 이웃 마을과 무슨 경주를 해도 패하기만 하고 이기는 때가 없었다. 마을 유지들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알아본 결과 마을 이름 때문이라는 데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맞을 영(迎)’, ‘날일(日)자’를 사용 ‘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그후부터 영일동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 진사(進士)터

「섬머리(島頭峰)」 서북쪽 광장을 말한다. 우도 개척자인 김진사가 거주하였던 곳으로 우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집터로 전해지고 있으나 지금은 집이 한 채도 없다.

김진사는 집주위에 버드나무를 심고 호화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웃에 거주하는 것을 싫어했다 한다. 이런 탓에 우도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뒷바당」이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 그는 노비들을 자신의 집 주위에 살게 하면서 물통을 파 노비들로 마시게 하였으나, 자신은 집안에 작은 우물을 파서 사용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사터에는 전해오는 얘기만 무성할 뿐이다.

□ 툇 밭 집

김진사는 우도에 경작허가를 받고 이주해 올 당시부터 자신의 집 주위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용납치 않았다. 주민들은 김진사의 집터를 「툇밭집」이라 불렀고 집이 있는 근처를 「툇밭」이라 했다. 「툇밭」은 「다른 밭들과 떨어져 있는 밭」을 뜻하는 방언이다.

김진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위에 사람이 사는 것을 조금씩 허락해 작은 규모지만 마을이 형성되었다.

1957년 김오생 씨 가족이 살다가 이주한 후 「툇밭집」은 폐가가 되었고 다른 주민들은 후해동을 비롯 다른 동으로 분산 이주하였다.

□ 진사(進士) 통

김진사가 우도에 입도, 기경과 동시에 노비들을 시켜 파놓아 사용해 오는 음료수이다. 지금도 영일동에 있어 과거의 영광을 말해주는 듯 하다. 김진사는 이 물통을 파서 자신의 집 주위에 거주 허가를 받은 노비들과 「뒗바당」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자신은 집안의 우물을 별도로 파서 사용하였다.

□ 용(龍)의 자리

영일동 남쪽에 섬머리(島頭峰)가 있다. 뒷쪽에 있는 봉우리를 「죽은 섬머리」라 하는데, 「죽은 섬머리」에 폭우가 몰아칠 때 산사태에 의해서 무너진 곳이 있다. 주민들은 이를 용의 꼬리가 쳐버린 곳이라 하여 「용의 자리」라 한다. 영일동 거주지역에서의 이곳은 보기가 매우 흉하다. 이 때문에 액운(厄運)이 닥친다 하여 나무를 심어 가려 버렸더니 흉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한다.

□ 까 막 동 산

영일동 「도살개」 포구 앞에 있는 방사탑을 말한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던 지관(地官)이 이곳이 너무 터져서 허(虛)하다며 받쳐줄 탑이 있어야 하겠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곳에 수·암탑을 세웠다 한다. (이외의 설명은 다른 동의 지명유래를 참고했으면 한다.)

□ 쪽제비동산

방사탑(까막동산)이 있는 부근을 말한다. 풍수지리상 지형이 쪽제비 형이라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 도체비 동산

「쪽제비 동산」 옆에 있는 동산을 말한다. 「도체비」는 「도깨비」의 제주어인데 밤이되면 이곳에 「도깨비불」이 자주 나타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깨비불」이란 밤에 무덤이나, 축축한 땅, 고목(古木) 등에서 인(磷)의 작용에 의해 번쩍이는 푸른 불빛을 말한다. 제주에서는 사람이 많이 죽은 곳이나 으스스한 곳에 잘 나타난다 하여 비가 오는 날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이런 곳에 가기를 꺼려했다. 「도깨비불」이 날아다닌다는 일화도 있다.

□ 보섭 봉우지

영일동과 동천진동의 경계이다. 「보섭」은 「쟁기날 : 보습」의 제주방언이다. 「봉우지」는 「봉우리」의 방언. 우도봉 중간 자락에 조그마한 산봉우리를 「보습」과 같다 하여 붙여졌다.

□ 가 메 혹

「가마」+「혹」의 합성어이다. 우도 동대 남쪽 100미터 지점에 「가마솥」을 부뚜막에 올려놓은 형태로 「혹」 같이 툭 튀어나온 지점을 이른다. 「가메」는 「가마솥」을 뜻한다.

□ 선 돌

우도봉 아래 30미터 지점에 바닷물에서 70미터 정도의 거대한 돌이 돌출되어 있다. 이 돌이 우뚝하게 서 있다 해서 「선돌」이라 한다.

□ 검 멀 래

「검은 코꼬망」 밑에 질펀하게 펼쳐진 검은 모래사장을 말한다. 여름이면 모래찜질을 하는 인파와 관광객으로 붐빈다. 최근에 도로에서 「검멀래」로 진입하는 계단이 시설되었다.

「검」은 「검다」준말, 「멀래」는 「모래」가 와전되었다.

□ 검은 코꼬망, 붉은 코꼬망

영일동 「검멀래」에 소의 콧구멍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수중동굴이 있다. 밀물 때는 동굴의 윗부분만 보이지만 물이 빠지면 굴이 나타난다. 이것이 「검은코꼬망」이다. 이 곳을 지나면 또 굴이 있다. 그러니까 이중 굴인 셈이다. 이 굴은 별칭이 이끼가 덮여 있다. 사람 2,000여명 쯤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굴이다.

해식동굴인 이곳에는 예전에 고래가 살았다는 얘기가 있다. 동굴내부가 온통 붉다하여 「붉은코꼬망」이다.

우도 8경중 하나로 동안경굴(東岸鯨窟)이라 한다.

□ 서 우 통

「선돌」과 「우도봉」 중간에 위치한다. 유래 전승자에 의하면 「서우」는 「두릅상어」의 방언이라 한다. 「두릅상어」가 그곳에서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그곳이 상어의 서식지로 알고 「서우통」이라 불렀다 한다.

□ 김 빌레

「김」이 많이 자생하는 넓적한 암초를 말한다. 「빌레」는 땅 또는 지면이나 바다 속에 넓적하게 묻혀진 돌을 말한다.

□ 돌랭이 바위

「돌랭이」는 제주어로 「조그마한 바구니」를 뜻한다. 바위가 「돌랭이」와 같다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서우통에서 100여 미터 북쪽에 위치한다.

□ 웃안은 여

「가마우지(물오리의 일종)」가 많이 앓기 때문이다. 「김 빌레」 북쪽 150여미터 지점에 있다.

□ 너 런 지

「너레가」는 「넓이」의 제주방언이다. 「너런」은 표준어 「넓다」에 해당된다. 「지(地)」는 땅을 뜻한다. 「너런지」는 「넓은 땅」을 의미한다.

이곳은 영일동의 제1종공동어장이다. 바다밑이 평평하고 얕으면서도 고기 먹이가 많아 소라, 전복이 많이 자생한다. 해녀들의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한다.

□ 온 여 목

큰 물통같이 생겼다. 만조시 고기들이 몰려들었다가 썰물이면 고기들이 갇힌다. 즉 「멜개(埧)」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개」는 아니다. 고기가 밀물에 「올라와(올려)」 「갇힌다(목)」는 뜻이다. 「김 빌레」 북쪽 100여미터 지점에 있다. 「올려」가 와전되어 「온여」가 되었다.

□ 청석빌레

「온여목」 북쪽 약 200미터 지점 수중에 있는 넓적한 암반이다. 암반이 늘 청색을 띠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목갈라진 여

얼핏 보기에는 한 덩어리의 암초인데 가까이 가 보면 가운데로 갈라져 있다. 제주에서는 암초를 「여(嶼)」라 하는 데 「여」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청석빌레에서 북쪽으로 70여미터 지점에 있다.

□ 쟁 반 여

여가 「쟁반」같이 둥그랗고 예쁘게 생겼다 해서 붙여진 지명인데 「목갈라진 여」가 이 「여」의 남쪽 100여미터 지점에 있다.

□ 너 른 구 미

「너른」은 「넓음」을 뜻한다. 「구미」는 해안에서 바다로 길게 뻗으면서도 휘어진 곳. 영일동 143번지 해안에서 바다로 길게 뻗은 코지(岬)가 있는데 그 내부가 넓다는 데서 연유했다.

□ 나 른 여

「너른구미」에서 북쪽으로 100여미터 지점에 있는 작은 「여」이다. 「나른」은 「남다」의 뜻이다. 이곳의 선인들은 해안의 지명을 명명하다 그 암초만 남아 있었다 해서 「남은 여」로 지칭한 것 같다.

□ 산 바 우

「산」+「바우」의 합성어이다. 산의 한쪽 면을 말한다. 「검멀레」 상단부분이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이다. 지면에서 낭떠러지가 시작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바우」는 「언저리」의 제주말이다.

□ 질 메 텍

우도봉 중간지점이다. 소에게 집을 짓기 위해 소똥에 얹은 안장처럼 생긴 도구, 갈마를 올려놓은 텍이라 해서 유래되었다. 우도봉을 소가 누워있는 형국으로

여겼던 이곳 선인들의 안목이 놀라웁다.

□ 망 동 산

우도에는 망동산이 두 곳이 있다. 망동산은 우도봉 산 6-3번지에 있는 연대와 같이 돌로 쌓아올린 곳을 말한다. 4·3사건 당시 공비의 출몰을 감시했던 곳이다.

□ 쇠시꺼 터

「시꺼」는 「제사(祭祀)」다. 우도봉 능선(등대옆)에 위치한 「진발레(긴반석)」를 말한다. 주민들이 소의 번식과 무병, 태우리(목동)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음력 7월 14일 밤(백중날) 「소제사」를 지냈던 장소이다.

□ 구린질 목

영일동 270 - 5번지 일대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구진 것」(도깨비, 헛것) 등이 많이 나뎠었다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구진」은 「좋지 않은, 나쁨」의 제주어이다. 「구진」이 세월이 지나면서 「구린」으로 와전되었고 「질」은 「길」을 뜻한다.

□ 섬 머 리

우도봉 정상이다. 「섬의 머리」, 즉 「쇠머리」이다.

이곳은 표고 132.5미터이고 등대와 삼각점이 있다. 남면과 남동면은 100여 미터에 가까운 단애를 이루어 절정을 자아낸다. 북사면은 분화구가 넓게 이어져 완만하고 길게 꼬리를 내려 바다에 잠긴다. 그것이 전홀동 「세비코지」이다.

우도봉(쇠머리)은 섬머리, 이곳에서 시작되어 전홀동 바다끝에서 끝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망 동 산

우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섬머리(島頭)」인데 「큰섬머리」 「작은섬머리」가 있다. 「큰섬머리」를 「망동산」이라 한다. 이 곳에 올라서면 우도 전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성산읍, 구좌읍 일대가 훤히 보인다.

예전에 왜구의 침입이 있을 때는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 밤이면 봉화불을 올려

성산읍의 수산봉(水山峯)과 구좌읍의 지미봉(地尾峯)으로 연락이 되었다 한다.

로일(露日)전쟁 당시에는 일본군 망루병이 러시아 함대가 대한해협을 침범하는 것을 포착 격파했다는 설이 있다.

조일리 산19-1번지이다.

제 4 절 天 津 里

□ 천진리(天津里)

천진동(天津洞)이었다. 1915년경 인구의 증가로 동·서로 나뉘어졌고, 1986년 4월 1일 구좌읍 연평출장소가 우도면으로 승격되면서 동·서 천진동을 합병 천진리가 되었다.

원래는 「한나루」였다. 천진동은 한(큰)+나루(津)의 잘못된 한자 표기이다. 즉 「대진(大津)」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한나루」를 「하늘 나라」, 「하늘이」로 잘못 풀이하여 한자식으로 동명을 개칭하면서 「천진동(天津洞)」이 되었다.

현재 우도의 관문이며 우도 최대의 포구인 우도항이 있는 곳이다.

□ 드렁코지(岬)

우도와 본도 사이의 거리 중 가장 가까운 곳이다. 즉 구좌읍 종달리 두문 포구 옆 돌출 부분인 「만서코지」와 「드렁코지」는 3킬로 미터 남짓이다. 종달리 포구에서 떼배(테우)를 아용 우도를 향하여 배를 띄웠는데 마침 하늬바람이 세차게 불어 노를 놓고 떼배가 흐르는 데로 닿은 곳이 「드렁코지」이다. 이후 우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이용해 드나들었다 한다. 즉 「뜰어온 코지」가 「드렁코지」로 변하였다. 음력 2월 15일(보름날) 영등굿의 환송제도 여기서 지낸다.

‘한라산 튀어나서 「드랑쉬(月朗峯: 구좌읍 세화리 소재)」 오름 줄기로 하여 「무주봉(無注峯: 구좌읍 월정리 연대가 있었던 자리)」에서 「만서줄기」, 소섬 「드렁코지」까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여(巔)로 이어지고 있다’고 「드렁코지」의 지세를 이렇게 설명 유래되고 있다. 이 말은 한라산에서 우도의 「드렁코지」까지 지맥이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 보섭 봉오지

동천진동 동해안에 바다쪽으로 보섭과 같이 길쭉하게 뻗어나간 곳을 「보섭봉오지」라 한다.

「보섭」은 땅을 갈아 일으키는데 쓰이는 쇠로써, 쟁기날을 말한다. 「봉오지」는 「산봉우리」의 제주어. 자형이 「보습」과 닮았다 하여 유래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초 미군 비행기의 오폭이었는지 몰라도 이곳을 포격 앞 코지(岬)를 파괴하였다.

□ 포제(酬祭) 동산

1870년경 서광리 포제동산에서 포제가 각 동별로 분리된 후 일제에 의해 포제가 폐지될 때까지 마을제가 올려졌던 곳이다. 천진리 1922번지에 있으며 최근 천진리가 민속마을로 지정되면서 정월 정해일에 포제가 재개되고 있다.

□ 돈 지 당

천지동 포구(우도항) 가까이에 있는 당이다. 어부와 해녀들이 음력 2월 보름에 이당에서 제사를 크게 지냈다. 일명 「하늘이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제사를 지낼때 제수(祭需)로 돼지고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돈지당」이라고 명명되었다 하나 확실치 않다.

예전 천진동 주민들이 이 당에 제를 지내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많은 재앙을 당했다. 이 때문에 다시 제를 올리게 되었다 한다. 이곳 주민들이 이 「당」을 신성시 했던 것은 「하늘이 포구」를 통해 시체를 실어내거나 실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시체 입·출도는 「돈지당」에 부정이 탄다 해서 「새계(新浦)」를 이용하게 했다. 여기를 「영장 시끄는(심는) 봉오지(봉우리)」라 한다.

□ 개우(繫牛) 모루

맬계(繫), 소우(牛), 한문자를 그대로 풀면 「소를 맨다」이다. 「모루」는 「마루」 또는 산마루. 소를 매어 풀을 먹이는 마루이다.

이곳은 「포제동산」, 「방동산」이라고도 한다.

지금도 이곳에 올라 보면 예전에 여러 용도로 이용되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또 「계우바루」, 「쇠맨물랭이」라고도 한다. 「바루」는 「마루」의 와전인 것 같고, 「쇠맨물랭이」는 쇠+매다+물랭이(제주어의 마루와 같다)의 합성어이다.

□ 양 뱅 방 통

서천진동 1541번지에 있다. 선사시대 우도는 진상용 말을 기르는 목장이었다. 「뱅방」이란 「梁兵防」으로서 목자들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입도한 양씨 성을 가진 무반(武班)이 이 섬에 물이 귀함을 알고, 목동들을 동원하여 물통을 짚다는 것이다. 이 물은 「테우리(목동)」들의 식수로도 사용되었지만 말들의 음료수로 사용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한다. 즉 우도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양 뱅방」이 처음 판 물통이란 것이다.

또 「梁 뱅방」이란 사람은 「넓미역」을 캐는 기구를 처음 만들어 낸 인물이라고도 한다. 우도면 서광리 앞바다는 「넓미역」 자생지이다. 칼구리가 달린 연장을 「넓미역」이 있는 곳에 넣고 돌리고 있으면 바다밑의 「넓미역」이 칼구리에 감겨 올라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용했던 기구와 흡사한 채취기를 발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 툴 까 니

「출까니」라고도 한다. 「출」은 「꼰」 또 「건초(乾草)」이다. 마소에게 먹이는 풀 따위를 이른다. 우도에서는 「구시(가마)」, 「구유」를 「까니」라 불렀다 한다. 우도의 선인들은 우도 명칭이 말해 주듯 우도는 소가 누워있는 형국, 성산을 오조리에 있는 식산봉(食山峯)을 「출눌(건초를 쌓아 올린 더미, 또는 가리라고 함)」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출눌」과 소 사이에는 「소먹이 통」이 있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이곳이다. 「툼까니」는 「출까니」가 와전되었다.

즉 소의 「여물통」이다. 「광대코지」 밑에 있다.

□ 광대코지(岬)

우도의 지형을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한다. 이는 대부분 농토가 평야로 형성되어 있는데 섬의 동쪽만이 높은 오름(기생화산)이다. 이 오름을 속칭 「섬머

리」라 하는데, 이는 섬 전체를 누운소(臥牛)로 볼 땐 소의 머리오, 이곳은 소의 얼굴로 볼 수 있는 곳이라 한다. 즉 소 얼굴의 뼈가 툭 튀어 나온 부분을 「광대뼈」라 해 「광대코지」로 명명되었다. 섬의 동남단 바다로 돌출한 곳이다.

「광대코지」 밑에 「코꼬망」이 있다.

□ 집 새 왓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이전만 하더라도 우도 대개의 가옥은 초가집이었다. 제주의 초가는 지붕을 띠(새)로 덮고 띠로 만든 줄을 갖고 동여 매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서천진동은 고(高)씨 집성촌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저수지 자리에는 새(띠)가 잘 자랐다. 이곳은 고씨 문중의 새(띠) 집단 채취지였다. 「집」은 「겹」의 제주어이며, 「왓」은 「밭」을 뜻한다. 지금의 각종 작목반(作目班)을 연상하면 되겠다. 새를 공동으로 베는 장소를 말한다.

□ 쇠 통 밭

농한기가 되면 들에서 소들을 방목한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바람이 불면 소들은 의지할 곳을 찾아 한곳으로 모인다. 천진리에는 바로 그런 밭이 있다. 「섬머리」의 경사와 움푹 패인 지형이 바람막이가 되는 곳이다. 소들이 많이 모이는 「밭」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동천진동 「서낭당」 아래쪽에 있다.

□ 해 군 성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해군 일개 중대가 우도에 주둔했었다. 서천진동 1546-3번지에 그 막사가 있었다. 지금은 철거되어 경작지가 되었다.

□ 말 왓

서천진동 산 30번지 일대 「밭」들은 대개 직·정사각형이다. 말(斗)과 같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벨랑 하늘이

동천진동과 서천진동 사이의 촌락이다. 예전에는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았다. 거주민들은 대개 양(梁)씨이다. 「드렁코지」로 사람이 입도하면서 이곳에 정

착했으나 거주 여건이 '별로'여서 지금의 천진동에 모여 살고 있다. 천진동의 옛 지명앞에 '벨랑(별로)'이란 부사를 붙여 명명되었다는 유래이다.

□ 각 시 물 통

우도에는 예나 지금이나 물이 귀하기로 유명하다. 동천진동 사람들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도 정상에서 가름하여 물이 나올만한 곳을 골라 땅을 파고 곱게 석축까지 쌓았으나 물이 나오기는커녕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았다. 이를 고민하던 주민들은 지관(地官)을 불러 이유를 물었다. 지관 왈 "각시를 데려와야 할 것 같소"하는 것이다. 이곳의 지형은 남자와 같아 여자 없이 자식(물)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느냐고 호통이다. 그것도 서쪽의 어두운 곳의 '색시물'을 모셔와야 한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은 수소문 끝에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사이에 있는 '서느랭이 굴' 속에 솟는 생수를 발견 정성껏 제(祭)를 지내고 새각시를 모셔오듯 물을 항아리에 담고 가마를 이용 길러다 물통에 부었다. 아니나 다를까 메말랐던 흙속에 습기가 차기 시작하더니 물이 솟았다.

이런 연유로 해서 「각시물통」이란 지명이 탄생되었다. 우도의 음료수는 대개가 봉천수를 모아 사용했다. 「각시물통」도 예외는 아니지만 물맛이 다른 물과 비교 훨씬 좋고 벌레들이 모이지 않아 깨끗했다고 한다. 동천진동 서낭당 부근에 있다.

□ 박 서 방 통

「박서방통」 옆에 박(朴)훈장이 살았다. 박훈장이 살면서 서당(書堂)을 운영했는데 학동들이 사용할 물이 없자 이곳에 물을 뿔다고 전해진다. 100여년 전 일이었다. 유래 전승자에 의하면 박훈장은 우도에 처음으로 문명을 전파한 사람이라 한다.

당초는 박훈장이 운영하는 서당 앞에 있다 해서 「박서당통」이었는데 부르기 쉽게 「박서방통」이 되었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박훈장의 묘가 있어 이를 증명했다. 우도에 일찍이 교육이 발전한 것도 박훈장 때문이며 그의 제자들이 자라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한다.

□ 쪽제비통

성천동 2640번지에 있다. 족제비가 물통 근처에 많이 서식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물통에 족제비가 빠져 해엄치는 광경을 보기도 했다.

□ 봉만이 오름

천진동에서 우도봉 정상으로 오르는 중턱 남서쪽에 야트막한 동산(오름)이 있다. 봉만이란 사람이 소유였다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 모기왓 동산

우도봉 등대로 오르는 길목에 음푹 패인 습지가 있다. 습기가 많으므로 자연히 모기가 서식하기 마련이다. 모기가 많다하여 「모기왓 동산」이다. 「왓」은 「밭」의 방언이다.

□ 생이집 동산

서천진동에 있다. 상여 기구를 보관하는 초막이 있었던 동산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일명 「상여집 동산」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참새들이 초가집 처마에 집을 짓고 살게 마련이다. 이렇게 해서 「생이집 동산」이라고 불리웠다. 「생이」는 「참새」의 제주어이다. 「상여집」이 「생이집」으로 와전되었다고도 한다.

□ 광고판 동산

서천진동 마을 중앙에 있는 동산을 이른다. 지대가 높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닌다.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이곳에 광고판(廣告板)을 설치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지 사항을 붙였다 한다. 동산 앞은 네거리인데 사람이 자주 모인다.

□ 비 석 거 리

우도항에서 섬의 중심부로 들어서는 길목에 영일동, 동천진동, 서광리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이곳을 「조회(朝會)동산」이라 했다. 거기에 유공 경찰관 비석이 건립되자 「비석거리」로 개칭되었다. 「비석거리」는 최근에 생긴 지명이다.

□ 좁은 모살넛끼

서빈백사(西濱白沙)의 남쪽 면적이 좁은 곳을 얘기한다. 서빈백사는 두 「모살넛끼」로 구분되는데, 넓은 곳은 「큰 모살넛끼」로 상우목동 지역이고 「좁은 모살넛끼」는 서천진동에 속한다.

□ 개 창

옛 「하늘이 개(浦口)」 안에 있었다. 「개」는 「포구」를 뜻하고 「창(窓)」은 입구를 말한다. 즉 포구의 출입구이다. 지금은 매립되어 선착장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 닻 망 여

지금도 우도항 입구에 있다. 배의 닻을 고정시키는 여(纜)로 이용됐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선 반 층

「톨까니」는 「섬머리」 밑바닥을 얘기하고 「선반층」은 「섬머리」에서 바다로 내려 깎은 듯한 단애를 이른다. 이 단애에 지층이 선반(懸盤)과 같이 생겼다 해서 「선반층」이다.

□ 안 툇까니

「광대코지」는 소의 얼굴이다. 「툇까니」를 「밖 툇까니」라 하고 「광대코지」 밑에 있는 「콧구멍」 안에 위치한 곳을 「안 툇까니」라 한다.

□ 코 고 망

「광대코지」 밑부분으로 사람의 코와 같이 툇 솟아나온 바위밑에 구멍이 있다. 이것을 소의 「콧구멍」으로 생각해 「코고망」이라 했다. 「고망」은 「구멍」의 사투리이다.

□ 돌 그린안

우도팔경중 하나인 주간명월(晝間明月)을 말한다. 「코고망」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이 물위에 반사되어 암벽 천정에 동그란 달이 뜬다. 이를 ‘달이 그려진 안쪽’이라 해서 「돌 그린안」이라 한다. 11월 20일을 전후한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주

간명월을 볼 수 있다.

일명 태음지굴(太陰之窟)이라고도 한다.

□ 쌀 마 진 개

우도의 낚시터 중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다. 「멜개(垣)」안 바위에 벼락이 내려 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고정된 도깨비 불 또는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해치는 악독한 기운을 제주에서는 「쌀」이라 한다. 살(煞)의 된소리라 이해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벼락」을 「쌀」로 표현했다. 「벼락 맞은 개(垣)」가 「쌀 맞은 개」이다.

예전에는 「멜개」였다.

□ 세 우 통

「틀까니」앞쪽에 있다. 그 옆으로 「불락」이란 고기가 많이 잡힌다 하여 「불락여」, 「자리(자돔)」가 서식한다 하여 「자리여」가 있다. 새우는 「불락」의 먹이이다. 「불락」이 먹이를 찾아 모일 수밖에.

□ 툰 여

「동천진동 포구」, 지금의 우도항에서 따로 떨어져 있다 해서 「툰여」이다.

「툰」은 「판」의 사투리이다.

□ 등 머 흘

우도항에서 「섬머리」동쪽으로 방조제가 시설되어 있다. 이 위에 올라서면 둥글고 작은 돌들이 짝 깔려 있는 해안을 보게 된다. 여기가 바로 「등머흘」이다. 「등」은 사람의 등과 같이 넓적하다는 뜻이고 「머흘」 또는 「머들」이라고 하는데 제주어로 「자갈」 혹은 작은 돌들을 말한다.

□ 들 림 머 리

「등머흘」에서 동쪽으로 20~30미터 가면 넓은 「빌레(암반)」를 만난다. 이 앞에 또 하나의 「불락」여가 있다. 썰물일 때는 바지가랭이를 걸으면 옷을 젖지 않고도 「불락여」에 갈 수 있다. 이 암반과 「불락여」 사이는 물이 「들락날락」 하므

로 각종 고기가 많이 서식한다.

물이 들고나는 「목」이라서 「들렁머리」이다.

□ 동개(東垣)

「들렁머리」 안에 100여 평이 되는 원(垣) 모양과 같은 평지가 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도 멸치를 잡았다. 동쪽에 있는 「원(垣)」이라 해서 「동개」이다.

□ 말 여

「동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嶼)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막내여」로 이해하면 되겠다.

□ 포 레 여

우도항과 서빈백사 사이에 위치한다. 지금도 이 여(嶼)에는 파래(푸른 빛을 한 해초, 국 재료로 사용한다.)가 많이 자생함에 따라 유래되었다.

□ 물 코 알

동천진동과 상우목동의 경계선이다. 이곳은 지형이 작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어 비가 오면 지표수가 이곳으로 모여 흙탕물이 개천을 이룬다. 물이 한데 모여 흐르는 곳이 아래쪽이다.

□ 진 여

서천진동 2571번지 해안에 길게 뻗은 여(嶼)가 있다. 암반이 길게 바닷물 속에 있다 하여 「진여」이다.

□ 새원(新垣)

새로만든 「뿔개」라 해서 「새신(新)」 「담원(垣)」 자를 사용 「새원」이라 했다. 서천진동 2630번지 해안에 있다.

□ 코 난 돌

서천진동 2571번지 해안에 사람의 코와 같이 뿔죽하게 튀어나온 돌이 있다. 이를 코같이 나왔다 해서 「코난돌」이다.

□ 불래낭 덕

보리수 나무가 자생하는 곳에 해녀들이 물속에서 언 몸을 녹이는 「불턱」이 있다 해서 「불래낭 덕」이다. 「불래낭」은 「보리수 나무」의 사투리이다.

□ 굽 여

「굽」은 「경계」의 방언이다. 서천진동과 상우목동의 경계에 있는 여(嶼)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팔 굽 은 여

서천진동 포구(똥내미 구석) 선착장 북쪽에 위치한다. 사람의 팔과 같이 굽었다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 작은 납대기여

서천진동 남쪽에 있다. 작으면서도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형상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돌」 앞에 있다.

□ 평 풍 돌

「드렁코지」 옆에 병풍같이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다.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이 돌은 작은 단애를 연상한다.

□ 고 동 여

자그마한 여(嶼)가 촘촘히 네 개가 늘어서 있다 해서 「쫓인여」라 하는데 암초 밖에 있다. 물속에 잠겨있는 수중 여(嶼)인데 소라가 많이 서식한다. 물이 센 곳으로 유명하다. 이 여는 종달리 앞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다.

□ 비 껌 통

「납대기 여」 가운데 물통과 같이 움푹 패인 곳이 있다. 이곳에는 「비껴(두릅 상어)」가 많이 서식하며 산란기에는 새끼를 낳기도 한다. 30~40년 전만 해도 장정들이 이곳에서 「비껴」를 맨손으로 잡기도 했다.

「비껴」를 잡을 때는 큼직한 하얀 수건을 막대기에 칭칭 감아서 「비껴」 앞에 내밀면 「비껴」가 이를 물고 놓지를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자맥질을 하여 「비껴」를

안아올렸다.

어느날 해녀가 이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비계」에게 유방을 물렸다. 「낫」과 「비창」으로 「비계」의 눈과 얼굴부위를 아무리 쑤셔도 놓지 않자 해녀는 「비계」를 안고 해안에 올라와 날카로운 막대기로 「비계」의 항문을 통해 척추에 자극을 주어 「비계」의 입을 열어 해녀가 살아났다는 일화가 있다.

□ 호 통 알

「물코알」 바닷가이다. 비가 쏟아지면 육지에 있던 먼지와 흙이 물에 씻겨 바다로 유입된다. 이렇게 되면 바닷물은 흙탕물로 변한다. 이런 뜻에서 유래되었다.

□ 영장 봉오지

도외(島外)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나 어로작업중 재해를 당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실어오고, 도내(島內)에서 죽은 사람이 본도로 나갈 때 이용하던 곳이다. 우도항 서쪽에 위치한다. 「돈지당」의 지명유래를 참고했으면 한다
「새개(新浦口)」라고도 한다.

□ 개 울 래

여기서 「개」는 「포구」를 말한다. 「울래」는 큰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작은 골목 즉, 입구이다. 다시 말해서 포구로 들어오는 길목을 얘기한다.

□ 바 당 여

암초(여)들은 대개가 해안 가까이에 분포돼 있다. 그러나 이 여(嶼)는 멀리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천진동 앞바다에서 멀리 보이는 여이다.

□ 썰 지 마 여

실과 같이 가늘고 길게 늘어져 있다 해서 명명되었다.

□ 진 개 강 알

「강알」은 사람의 양쪽다리 사이, 사타구니를 말한다. 「넙대기여」, 「죽은 넙대기여」가 있는 해안의 사람이 두 다리를 벌려 앉은 형국이다. 또한 썰물이면 이곳

에 긴 개(垣)와 같다 하여 「진(長)개강알」이라 했다. 즉 진+개+강알의 합성어이다.

□ 서 낭 탕

「각시물통」에서 서쪽으로 50여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동천진동 사람들이 가정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다. 이 지명유래를 쓰기 위해 현장을 답사할 때에도 고목의 허리에는 울긋불긋한 색종이들이 걸려 있었고 어느 아낙이 피웠던 양초인지 성냥불을 그어 대면 금방이라도 불꽃을 피워 올릴 것 같은 양초가 모두 마니 놓여 있었다.

□ 由來傳承者

禹奉水(78세) 鄭贊景(77세) 禹奉浩(75세)

申仁弘(74세) 禹柱勳(68세) 吳永敦(67세)

韓斗京(64세) 金準澤(60세) 高豪秀(58세)

이상 여러 어르신네들과 우도면 노인회 회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 참고문헌

현용준, 제주도傳説(서문문고 220), 서문당, 1977.

康大元, 舊左面誌, 韓一文化社, 1979.

犬英性, 舊左邑誌, 泰和印刷社, 1986.

月刊 觀光濟州 8月號, 月刊觀光濟州社, 1985.

演坪郷土誌, 演坪國民學校, 1987.

濟州道部落誌(Ⅲ),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1990.

